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연구보고서 2017-05

중·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특성과 삶의 질 연구

송현주 · 임 란

NPS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머 리 말

인구고령화로 향후 길어질 노후시기 삶의 질의 중요성은 매우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후준비는 공적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정책 중심에서, 삶의 질적 수준 하락 방지를 위한 종합적 차원의 노후준비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후준비지원법이 제정(2015.12)되어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4苦(빈곤, 질병, 무위, 고독)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었으며, 제1차(2016~2020년) 노후준비지원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 · 운영됨에 따라 향후 노후를 앞둔 세대의 노후준비에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종합적 차원의 노후준비로 정책기조가 변화된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에 강조되어 왔던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준비가 이루어진 채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중고령자들의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삶의 질의 실태가 어떠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공적연금제도의 도입과 확대적용기를 고려할 때 현재의 노후시기에 있는 중고령자의 경우에도 공적연금으로도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다수이며,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소득보장수준의 차이를 고려할 때, 공적연금의 수급여부 및 공적연금 종류 등의 특성에 따라 다차원적 · 종합적 삶의 질 수준이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노후준비가 크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현재의 중고령자의 삶의 질 수준을 공적연금 특성에 따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로, 국민연금연구원 송현주 부연구위원과 임란 주임연구원의 공동 연구로 수행되었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언과 견해를 아낌없이 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경희 박사, 정해식 박사, 보험연구원의 강성호 박사,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제도실장, 최옥금

박사, 안서연 박사 등 내·외부 박사님들과 본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의견을 주신 익명의 검독위원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연구자의 개인적 의견으로,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7년. 12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 성 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직무대리 이 용 하

목 차 | Contents

요 약 ·· 1

Ⅰ. 서 론 ·· 19

Ⅱ. 삶의 질 개념과 측정 ·· 23
1. 삶의 질 개념 ··· 23
가. 정의 ··· 23
나. 삶의 질과 노후준비 ··· 27
2. 삶의 질 측정 관련 연구동향 ·· 30
가. 국제기구의 삶의 질 관련 지수 ··· 30
나. 국내 삶의 질 지수산출 관련 연구 ····································· 31
다. 지수화 방법 ·· 34
3. 삶의 질 산출 ·· 36
가. 삶의 질 지표 ·· 37
나. 사용자료 ·· 39
다. 지수화 과정 ·· 41

Ⅲ. 공적연금 수급특성에 따른 삶의 질 분석 ······································· 55
1.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삶의 질 수준 분석 ······························ 57
가. 연령대별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삶의 질 비교 ························ 57
나. 공적연금 수급자와 사각지대간 삶의 질 비교 ···························· 66
2.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 비교 ······················ 70
3.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별 삶의 질 비교 ································ 75
가. 노령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별 삶의 질 비교 ···························· 76

나. 유족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별 삶의 질 비교 ······················ 82
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급자의 삶의 질 비교 ······················ 86

Ⅳ. 결론 및 시사점 ·· 91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 91
2. 시사점 ·· 93
3. 연구의 한계점 ·· 98

참 고 문 헌 ·· 101
부 록 ·· 105

표 차 례

〈표 2-1〉 각 영역 별 삶의 질 구성내용 ································· 26
〈표 2-2〉 국민연금공단 노후설계서비스범위(분야별) ························ 29
〈표 2-3〉 국민연금공단 노후설계 5종의 주요 서비스 ······················ 30
〈표 2-4〉 삶의 질의 재차원별 개별지표 ·· 39
〈표 2-5〉 개별 지표의 표준화를 위한 조작적 정의 ························ 46
〈표 2-6〉 개별 지표의 표준화 점수 분포와 상대적 비중 ················ 49
〈표 2-7〉 영역별 점수 분포와 상대적 비중 ································· 51
〈표 2-8〉 삶의 질 영역별 점수 수준과 종합적 삶의 질에서 갖는 중요도 순위 ·· 52
〈표 3-1〉 50대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삶의 질 영역별 개별 지표 점수 ·· 58
〈표 3-2〉 50대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삶의 질 영역 및 종합점수 ···· 59
〈표 3-3〉 60대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삶의 질 영역별 개별 지표 점수 ·· 61
〈표 3-4〉 60대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삶의 질 영역 및 종합점수 ···· 62
〈표 3-5〉 70대 이상의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삶의 질 영역별 개별 지표 점수 ·· 64
〈표 3-6〉 70대 이상의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삶의 질 영역 및 종합 점수 ·· 65
〈표 3-7〉 공적연금 수급자와 사각지대간 삶의 질 개별지표 비교 ··· 68
〈표 3-8〉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삶의 질 영역 및 종합점수 ············ 69
〈표 3-9〉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 개별 지표 비교 ·· 72
〈표 3-10〉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 영역 및 종합점수 ··· 74

〈표 3-11〉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수준별 삶의 질 개별 지표 점수 ·· 78
〈표 3-12〉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수준별 삶의 질 영역 및 종합 점수 ························ 80
〈표 3-13〉 국민연금 유족연금 급여수준별 삶의 질 개별 지표 점수 ·· 83
〈표 3-14〉 국민연금 유족연금 급여수준별 삶의 질 영역 및 종합 점수 ························ 84
〈표 3-15〉 기초연금 수급자와 동시수급자의 삶의 질 개별 지표 점수 ························ 88
〈표 3-16〉 기초연금 수급자와 동시수급자 삶의 질 영역 및 종합 점수 ························ 89
〈부록 1〉 공적연금 가입자, 수급자, 사각지대의 삶의 질 영역별 비교 ························ 106
〈부록 2〉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 비교 (특수직역연금 종류별) ························ 108
〈부록 3〉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 비교 (특수직역연금 종류 및 급여종류별) ························ 110
〈부록 4〉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유형별 삶의 질 영역별 점수 ·· 112

그 림 차 례

[그림 2-1] 삶의 질 기본 틀 ········· 26
[그림 2-2] 삶의 질 산출과정 ········· 41
[그림 2-3] 삶의 질 종합점수 분포 ········· 53
[그림 2-4] 삶의 질 종합점수 5분위 성별, 연령별 분포 ········· 54
[그림 3-1] 50대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삶의 질 영역별 비교 ········· 59
[그림 3-2] 50대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삶의 질 종합점수 비교 ········· 60
[그림 3-3] 60대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삶의 질 영역별 비교 ········· 63
[그림 3-4] 60대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삶의 질 종합점수 비교 ········· 63
[그림 3-5] 70대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삶의 질 영역별 비교 ········· 66
[그림 3-6] 70대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삶의 질 종합점수 비교 ········· 66
[그림 3-7] 공적연금 수급자와 공적연금 사각지대간 삶의 질 영역별 비교 ········· 69
[그림 3-8] 공적연금 수급자와 공적연금 사각지대간 삶의 질 종합점수 비교 ········· 70
[그림 3-9]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 영역별 비교 ········· 74
[그림 3-10]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 종합 점수 비교 ········· 75
[그림 3-11]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별 삶의 질 영역별 점수 ········· 81
[그림 3-12]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별 삶의 질 종합점수 비교 ········· 81
[그림 3-13]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별 삶의 질 영역별 점수 ········· 85
[그림 3-14]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 종합점수 ········· 85

[그림 3-15] 기초연금 수급자와 동시수급자 삶의 질 영역별 비교 ·· 90
[그림 3-16] 기초연금 수급자와 동시수급자의 삶의 질 종합점수 ···· 90

요 약

Ⅰ. 서론

❑ 인구고령화로 향후 길어질 노후시기 삶의 질의 중요성이 매우 클 것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방향도 변화되고 있음.

○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정책→ 삶의 질적 수준 하락 방지를 위한 종합적 차원의 노후준비로 변화

–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정책 수립 · 관리

– 제1차(2016~20년) 노후준비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운영

– 노후준비지원법(2015.12)을 만들어 노년기에 발생 가능한 4苦(빈곤, 질병, 무위, 고독)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 등

❑ 이러한 종합적 차원의 노후준비로 정책기조가 변화된 초기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에 강조되어 오던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를 해온 이들의 삶의 질 수준의 실태 파악이 이루어질 필요

○ 공적연금을 통한 재무적 노후준비를 해 온 이들의 재무적 · 비재무적 영역을 포괄한 삶의 질의 수준을 진단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수급특성 등에 따른 개인의 재무적 · 비재무적 영역이 포괄된 객관적인 지표들로 구성된 표준화된 측정방식에 의한 삶의 질 수준의 비교가 필요

❑ 본 연구에서는 노후준비가 크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중고령자의 삶의 질의 수준과 구성영역별 실태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경제적 노후준비방안인 공적연금 수급과 이들의 삶의 질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봄으로써, 연금수급과 삶의 질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가 가진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음.

○ 중고령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개인이 삶에 만족할수록 삶의 질이 높을 것을 가정하고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삶의 질의 대리변수로 설정한 연구들이 다수임.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객관적 삶의 질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인의 주관적 평가는 최대한 배제함에 따라 기존 선행연구들과의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음.

○ 본 연구와 같이 중고령자의 객관적이고 종합적 삶의 질을 살펴본 연구는 국내에 정경희(2013) 연구가 유일하나, 지표 개발과 이에 따른 연령대별 삶의 질 차이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의 특성을 통한 삶의 질 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가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가져오는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Ⅱ. 삶의 질 개념과 측정

1. 삶의 질

❑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경제지표 중심의 생활여건이나 삶의 조건을 파악하는 것의 한계로 등장한 개념임

○ 삶의 질을 명확하게 개념화 할 수 없음. 주로 삶의 만족도, 행복, 웰빙 등의 개념으로 봄

○ 삶의 질은 개인의 주관적 지표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주관적 접근법과 경제적 부분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안전 등 객관적 사실에서 기초해서 봐야한다는 객관적 접근법이 있으며, 최근 이 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법도 있음.

❑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 속도, 노년층의 빈곤문제 및 최근 중·고령층의 고독사 등 여러 방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종합적으로 보고 이들의 삶의 질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제정된 노후준비지원법에서도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질병, 무위, 고독을 사전에 대처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음

○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가 설치되었으며,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

❑ 본 연구에서는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삶의 질을 노후준비 4대 영역 및 노인의 4苦에 착안하여 소득·자산부분, 건강부분, 가족사회관계, 사회참여 부분으로 영역화하여 연구함

2. 삶의 질 측정 관련 연구동향

❑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삶의 질 관련지수는 대부분 종합적 접근에서 삶의 질을 보고 있음

○ UNDP의 인간개발지수는 길고 건강한 삶, 지식, 생활수준의 세 차원에서 삶의 질 지수를 발표하며, WHO에서는 신체적 건강, 심리적 측면, 자립성, 사회관계, 환경, 종교 및 개인적 신념 차원에서 지수를 발표하며, OECD 에서는 물질적 생활조건 및 삶의 질을 포함한 보다 나은 삶 지수를 발표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삶의 질 및 관련 개념(행복, 웰빙 등)과 관련된 지표를 산출한 연구가 일부 있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있으나 특정 지역별(예, 부산, 농어촌), 대상별(아동청소년, 청소년, 중·고령층, 노인) 등 세부적으로 수행된 연구가 있음

❑ 지수화 방법

○ 지표를 종합지수화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음

- 단순평균 이용, 상관계수 이용, 주성분분석법을 이용, 인자분석을 이용, 표준편차 정규화 방법,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중요도 평가를 이용, 회귀계수를 이용, 의사결정 계층구조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각 문항별, 영역별 및 종합지수를 산출하였음

3. 삶의 질 산출

❑ 삶의 질 지표

○ 삶의 질의 지수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나,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영역별, 그리고 종합지수까지 산출하여 살펴볼 수 있는 연구로는 정경희 외(2013)가 개발한 중·노년층의 삶의 질 지표체계가 유일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 지표를 적용함.

〈요약 – 표1〉 삶의 질의 재차원별 개별지표

노년기 4苦	영역	개별지표	비고
고독	1. 가족사회 관계	1-1. 배우자유무 1-2. 자녀와의 물리적 접근성 1-3. 생존 형제자매수 1-4. 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	사회적 연계망을 구성하는 주요 tie별 지표 선정
빈곤	2. 소득자산 상태	2-1. 가구균등화소득 2-2. 가구균등화자산 2-3. 자산의 유동성(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 2-4. 연금 가입 및 수급실태(공적연금과 개인연금(종신보험 포함))	– 현재의 경제상태: 소득, 자산 –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과 준비: 유동성, 다층적 노후 소득준비
질병	3. 건강상태	3-1. 만성질환수 3-2. 우울증 3-3. 활동제한 정도 3-4. 건강행위 실천정도(운동과 건강검진 수검여부)	– 건강상태(신체적, 정신적 측면)
무위	4. 사회참여	4-1. 적절한 경제활동 참여 4-2. 단체활동참여수 4-3. 공연문화 향유여부 4-4. 여행경험 여부	다양한 사회참여방법 반영

❑ 삶의 질 지수화

○ (분석자료)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6차 본조사(2015년)와 6차 부가조사(2016년) 결합자료. 두 조사에 모두 응답된 자료만 사용

○ (삶의 질 지수화 과정) 개별지표 표준화-영역별 지수산정-종합지수산정의 과정을 거쳐 표준화된 개별지표, 영역별 지표, 종합지수가 산정되며, 모두 비교가능한 100점 만점 형태로 이루어짐. 지수화 과정에서 전반적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변수와의 개별문항 및 영역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가중치를 적용함.

〈요약 - 표2〉 개별 지표의 표준화 점수 분포와 상대적 비중

영역	지표	표준화 점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값	영역내 비중
1. 가족사회관계	1-1. 배우자유무	76.8	39.4	0.213	0.404
	1-2. 자녀와의 근접성	61.2	32.3	0.078	0.148
	1-3. 생존 형제자매	95.9	18.9	0.127	0.241
	1-4. 친구·이웃	99.4	7.4	0.109	0.207
2. 소득·자산상태	2-1. 가구균등화소득	55.0	31.8	0.308	0.313
	2-2. 가구균등화자산	55.0	31.8	0.283	0.287
	2-3. 자산의유동성	59.3	37.4	0.217	0.220
	2-4. 연금가입 및 수급실태	32.3	26.3	0.177	0.180
3. 건강상태	3-1. 만성질환수	72.0	31.1	0.257	0.263
	3-2. 우울증여부	75.0	40.3	0.312	0.319
	3-3. 활동제한	94.8	20.9	0.253	0.258
	3-4. 건강행위 실천	72.5	31.6	0.157	0.160
4. 사회참여	4-1. 적절한 경제활동 참여	36.7	32.9	0.242	0.364
	4-2. 단체활동참여수	36.4	21.4	0.252	0.380
	4-3. 공연문화 향유여부	17.0	23.9	0.088	0.133
	4-4. 여행경험 여부	23.3	29.9	0.082	0.123

○ (영역별 지수화) 중고령자의 삶의 질의 하위 영역의 수준과 종합적 삶의 질에서 갖는 중요도는 다름.

〈요약 – 표3〉 영역별 점수 분포와 상대적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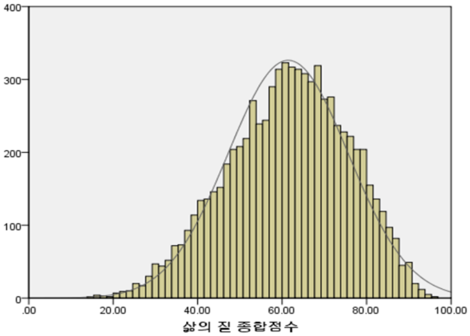
영역	점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값	종합지수내 비중
1. 가족사회관계	83.7	18.4	0.244	0.178
2. 소득자산상태	51.9	21.9	0.378	0.275
3. 건강상태	78.9	19.2	0.430	0.313
4. 사회참여	32.3	17.2	0.321	0.234

〈요약 – 표4〉 삶의 질 영역별 점수 수준과 종합적 삶의 질에서 갖는 중요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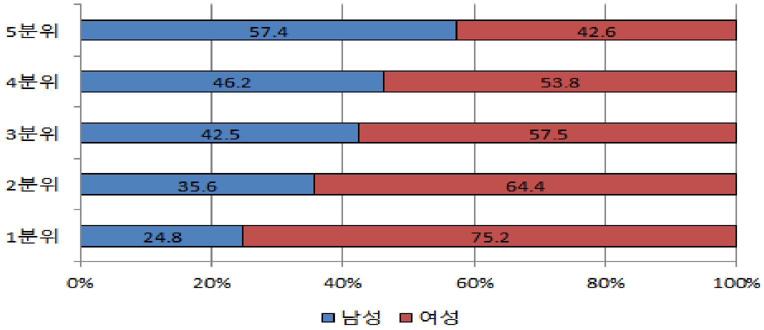
	가족사회관계	경제상태	건강상태	사회참여
점수 수준	1	3	2	4
종합적 삶의 질에서 갖는 중요도	4	2	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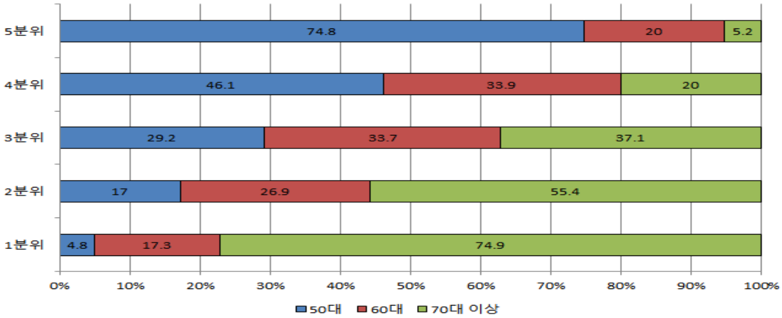
○ (종합점수 산출) 중고령자의 삶의 질 종합점수 분포는 종모양의 정규분포 형태를 이루며, 여성과 고연령층의 삶의 질 종합수준이 낮은 분포를 보임

[요약 – 그림1] 삶의 질 종합점수



[요약 – 그림2] 성별, 연령대에 따른 전반적 삶의 질 분포





Ⅲ. 공적연금 수급 특성에 따른 삶의 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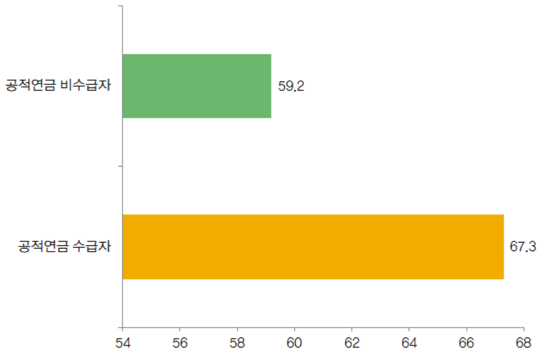
1. 공적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삶의 질 수준 분석

❑ 공적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삶의 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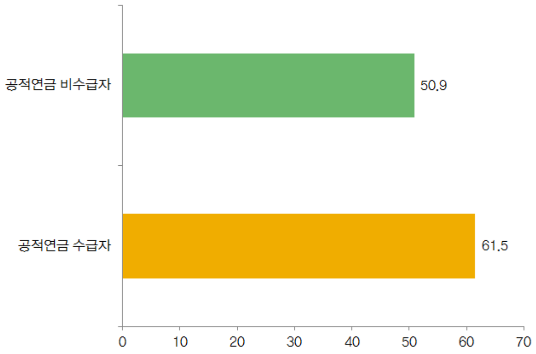
○ 50대의 경우 주로 공적연금 가입자로, 연금수급자는 극소수에 불과. 60대, 70대 이상의 경우 공적연금 수급자의 가족·사회관계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개별지표 및 영역별, 종합 점수 수준이 비수급자에 비해 높음

○ 70대 이상의 고연령자의 경우, 60대에 비해 공적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삶의 질 수준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남

[요약 – 그림3] 60대 공적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삶의 질 종합점수 비교



[요약 – 그림4] 70대 공적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삶의 질 종합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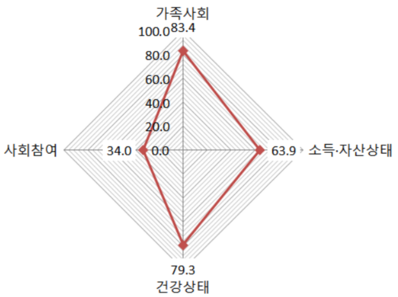
❏ 공적연금 수급자와 사각지대간 삶의 질 비교

○ 공적연금 수급자가 사각지대에 비해 삶의 질 수준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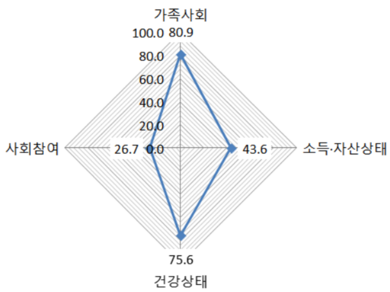
– 영역별 개별지표를 포함하여 모든 하위영역과 삶의 질 종합점수 모두 공적연금 수급자가 사각지대 중고령자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집단간 점수차가 큰 영역은 소득·자산상태 영역(20.3점)과 사회참여영역(7.3점)임

[요약 – 그림5] 공적연금 수급자와 공적연금 사각지대간 삶의 질 영역별 비교



공적연금 수급자



공적연금 사각지대

2.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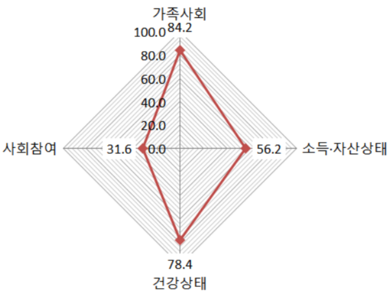
○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간 높은 점수의 개별지표가 다름

○ 집단간 점수차가 큰 개별지표는 소득·자산상태 영역의 소득 및 자산 관련 지표이며, 사회참여영역에서의 공연문화 향유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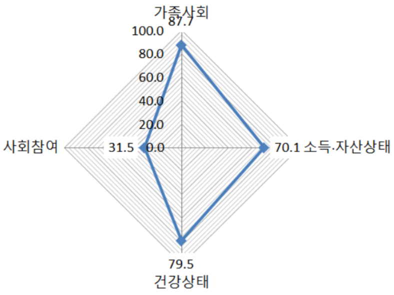
○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해 소득·자산상태 영역(13.9점)과 가족·사회관계 영역(3.56점)의 점수가 높으며, 삶의 질 종합점수 역시 높음.

[요약 - 그림6]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 영역별 비교

(단위: 점)



국민연금 수급자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3.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종류 및 급여수준별 삶의 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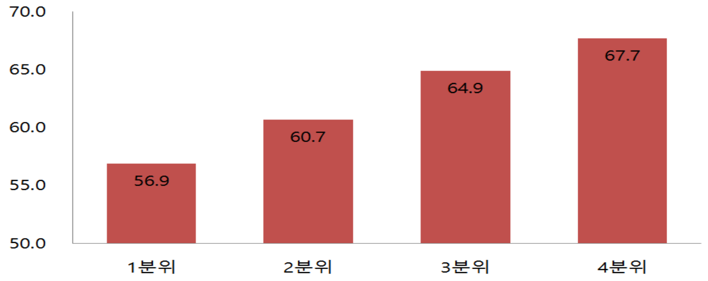
❑ 노령연금 수급자

○ 개별지표를 포함한 가족·사회관계, 소득·자산상태, 건강상태, 사회참여 영역, 종합점수 모두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음.

○ 사회참여 영역은 급여수준 3~4분위의 점수가 1~2분위의 점수에 비해 크게 높음

[요약 – 그림7]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별 삶의 질 종합점수 비교

(단위: 점)



❑ 유족연금 수급자

○ 유족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은 급여수준에 따른 개별 지표, 하위 영역, 종합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유족연금의 삶의 질 수준에는 연금 급여수준이 직·간접적 관련성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임.

4. 기초연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수급자의 삶의 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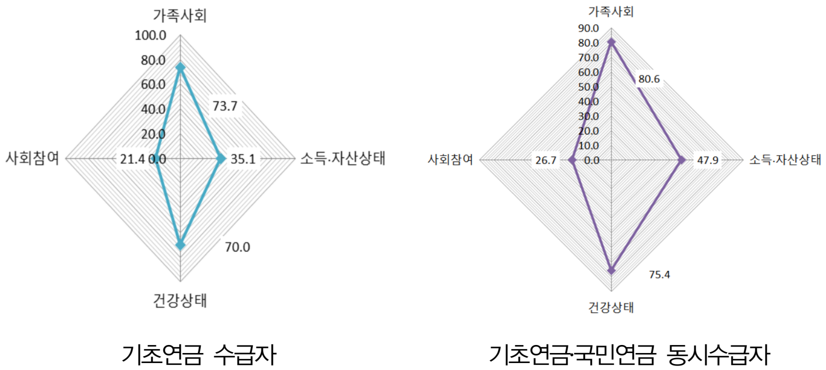
○ 동시수급자의 대부분의 개별지표와 소득·자산상태 영역, 사회참여 영역의 개별지표 점수가 높음

○ 가족·사회관계, 소득·자산상태, 건강상태, 사회참여 영역 모두 동시수급자의 삶의 질 수준이 높음

- 집단간 점수차가 크게 나타난 영역은 소득·자산상태 영역(12.8점)임

○ 동시수급자의 삶의 질 종합점수 수준 역시 기초연금 수급자에 비해 높음.

[요약 – 그림8] 기초연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수급자의 삶의 질 영역별 비교



Ⅳ. 결론 및 시사점

❑ 요약

○ 기존의 노후소득마련에서 다차원적 노후준비로 정책방향이 변화되었으나, 현재의 중고령자들은 공적연금이 유일한 노후준비 수단으로, 다차원적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음.

○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만이 노후준비 수단이었던 중고령자들의 다차원적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보았음.

○ 이를 위해 중고령자의 다차원적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통해 삶의 질의 개별 지표, 하위영역,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공적연금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하여 살펴보았음.

- 전반적으로 중고령자의 삶의 질 하위 영역은 객관적 수준과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남
  - 삶의 질 하위 영역의 수준은 가족·사회관계,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참여 순으로 나타났으나,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서 갖는 중요도는 건강상태, 소득·자산상태, 사회참여, 가족·사회관계 순임

○ 공적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공적연금 수급자와 공적연금 사각지대간,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간, 국민연금 종류 및 급여수준간, 기초연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수급자간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하여 살펴보았음.

- 공적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연령대별 삶의 질 비교 결과, 공적연금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소득·자산, 건강상태, 사회참여 영역 및 종합점수가 높으며 60대에 비해 70대 이상 고령자의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점수차가 더 큼.
- 공적연금 수급자와 공적연금 사각지대간 삶의 질 비교에서는 공

적연금 수급자가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비해 개별 지표를 포함한 모든 하위영역과 종합점수 수준이 모두 높음. 특히 소득·자산상태 영역과 사회참여 영역의 점수차가 크게 나타남.

-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간 삶의 질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해 소득·자산상태 영역과 가족·사회관계 영역의 점수가 높았으며, 삶의 질 종합점수도 높게 나타남.
-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별 삶의 질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개별 지표를 포함한 삶의 질 모든 하위 영역과 종합점수가 높게 나타남.
- 그러나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는 개별 지표, 삶의 질 하위 영역, 종합점수가 급여 수준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별 삶의 질 수준별 차이를 나타내기에는 급여수준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기초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의 삶의 질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동시 수급자의 삶의 질 모든 하위 영역과 종합점수가 기초연금 수급자에 비해 높았으며, 하위영역 중 소득·자산상태 영역의 점수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본 연구에서 중고령자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별 객관적 수준과 삶의 질에서의 중요도를 고려한 결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자산상태 영역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

- 소득 · 자산상태 영역은 수준이 낮은 편이나 중요도가 높은 편임. 그러나 중고령자의 집단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기도 함

- 공적연금 수급 특성에 따라서도 삶의 질 하위 영역 중 집단간 소득·자산상태 영역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역별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소득· 자산상태 영역]

- 연금 수급자와 사각지대간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연금 수급률이 낮은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의 무소득배우자로서 적용제외되었던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 등을 통한 수급권 확보 필요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제도의 도입시기 및 제도 자체의 차이가 존재하나, 노후소득보장 수준의 격차를 줄일 필요
  -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수준이 높으나 공무원, 군인, 교사 등 특정 직종에 제한되어 있음.
  - 제도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성숙되어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향상될 필요
-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 늘릴 필요
  -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더라도 장기가입, 수급연령에 도달하였더라도 연금의 수급 연기, 조기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 수급 중단하고 재가입 등의 방법으로 가입기간 확보를 통한 급여수준을 올릴 필요
- 공적연금 없이 기초연금만 수급받는 경우 삶의 질이 열악함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 수준의 상향 고려 필요

[건강영역]

- 건강이 중고령자의 종합적 삶의 질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가장

높고, 객관적 수준 역시 높은 편이나, 노후시기 건강의 악화는 삶의 질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올 수 있음.

- 공적연금을 수급받거나 수급수준이 높은 경우 건강행위 실천 수준이 높아, 연금 수급이 건강관리 등 의료비 등으로 지출될 가능성 높아, 연금 사각지대 등 노후소득이 충분치 못한 중고령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필요

– 소득수준이 열악한 고령자들의 정신건강 관리 필요

- 건강관련 영역 중 우울은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 지표로 나타나, 열악한 노후소득 수준은 우울과도 연결될 수 있음
- 생활고로 인한 노인자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빈곤노인들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관리 필요

[사회참여영역]

– 노인일자리 확충을 통한 소득확보로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 필요

- 적절한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확보가 전제되어야 단체활동, 공연향유, 여행 등의 여가활동이 이루어질 것임. 이를 위해서는 노후시기에도 가능한 일자리 필요

– 사회참여의 객관적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중요도를 고려할 때 노인일자리, 여가 활동 등으로 인한 사회참여 수준이 향상된다면 삶의 질의 종합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

[가족·사회관계영역]

– 가족과의 갈등 관리, 배우자 사망 등에 대처한 노후설계서비스 이용 필요

- 가족·사회 관계는 개인의 노력보다는 이미 주어진 관계로 객관적 점수가 높은 편이나, 배우자 사망이나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변화가능성이 높은 영역이기도 함.
- 또한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 급여수준이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 국민연금공단 노후설계서비스의 노후설계서비스의 상담 및 대처방법 등이 대인관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연구의 한계점

○ 다양한 공적연금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기에는 표본의 한계가 있어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함. 향후 공적연금의 다양한 특성별 삶의 질 비교를 할 수 있는 표본이 확보된다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임.

○ 개인별 소득이나 자산 자료가 확보되었다면 보다 정교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임.

○ 향후 공적연금 수급자를 노인, 초고령자 등으로 연령을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비교하거나, 부부의 공적연금 수급유형별 삶의 질 차이 등이 분석된다면 보다 흥미로운 시사점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 특성에 따른 노후 삶의 질 수준의 실태 파악과 시사점 제시를 목적으로 하므로, 구체적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Ⅰ. 서 론

2014년 미래부의 ‘미래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 10년간 중요한 이슈 1위로 ‘저출산·초고령사회’를 선정했다. 인구는 고령화되어 가는데 부양할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길어질 노후시기의 삶의 질이 매우 중요할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외, 2016).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정책방향도 바뀌고 있다. 기존에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정책이 소득 등 재무적인 측면에 맞추어 노후소득보장정책이 주요 정책이 되었으며,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중심에는 공적연금이 있었다.

최근에는 길어진 노후시기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은퇴 이후에도 삶의 질적 수준이 급격히 하락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조가 변화하였다.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4苦인 빈곤, 질병, 무위, 고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노후준비를 강조하고 있다[1].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관리하는 한편(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 2015년 12월에는 노후준비지원법을 만들어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사전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1차(2016년~2020년) 노후준비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

1) ‘삶의 질’에 대해 공통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부재하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이 연금수급연령에 있는 자들이므로 노후준비지원법에 의거한 4대영역(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의 수준이 높다면 노년기 4苦(빈곤, 질병, 무위, 고독) 발생빈도가 낮을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의 수준을 노후시기 삶의 질을 반영하는 대리변수로 정의한다.

국민의 노후준비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시기 삶의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노후준비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주로 은퇴 이전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재 노후시기에 있는 중고령자들은 공적연금만이 유일한 노후준비 수단이었으며, 그나마도 다수가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존에 노후준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오던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재무적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영역까지 포괄한 노후 삶의 질의 실태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노후시기 삶의 질은 경제적 측면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다차원성을 가진다는 점을 토대로 할 때, 노후시기 삶의 질을 구성하는 차원별 실태를 진단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중고령자들의 노후준비 수단이었던 공적연금의 특성, 즉 공적연금수급 여부, 연금 종류, 급여수준 등에 따른 중고령자의 삶의 질의 차원별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삶의 질에 대한 공통된 정의가 부재하였고, 그나마 국가 차원의 삶의 지표가 유일하며, 지금까지 개인별 삶의 질을 비교하는 데 있어 주로 개별주체의 주관적 인식에 의한 삶의 만족도의 비교가 주를 이룸에 따라 개별 주체의 삶의 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수단이 부재했다.

객관적 상태가 개별 주체의 주관적 만족을 대표할 수 없다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반대로 개별 주체마다 기준이 다른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의한 삶의 질 비교는 이를 객관화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삶에 만족하느냐 여부가 객관적 삶의 질을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개별 주체간 삶의 질을 비교하고, 삶의 질의 제고를 위한 삶의 질 영역별 수준을 비교를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들로 구성된 표준화된 측정방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삶의 질을 표준화된 방식에 의한 비교를 통해

그 수준와 삶의 질의 구성영역별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중고령자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대표적 경제적 노후준비방안인 공적연금 수급 특성과 이들의 삶의 질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봄으로써 노후준비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본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을 서론에서 다루고, Ⅱ장에서는 본 연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관련이 있는 개념들인 삶의 질 정의와 삶의 질의 측정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본 연구의 삶의 질 지수 산정과정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중고령자의 삶의 질의 기초적 이해를 돕는다.

Ⅲ장에는 공적연금 수급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의 비교 분석을 다루었다. 1절에서는 공적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보았는데, 연령대별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공적연금 수급자와 공적연금 (가입과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간 삶의 질의 수준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2절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국민연금 급여종류 및 급여수준별 삶의 질을 살펴본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급여수준별, 유족연금의 급여수준별 수급자의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본다. 4절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수급자간 삶의 질의 수준을 비교하였다.

Ⅳ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에 연구의 한계점을 밝혔다.

본 연구는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다차원적 삶의 질의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가 대다수의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거나 연금을 통한 노후준비가 이루어졌던 현재의 노후세대들의 객관적 삶의 질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이들의 노후시기 삶의 질이 어느 수준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 이론 검증 위주

의 학술연구가 아닌 실태 분석을 통한 현황 파악 및 노후준비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현재 노후시기를 보내고 있는 세대의 다차원적 삶의 질의 수준에 대한 이해수준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준비의 필요성 인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등의 업무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다른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고령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토대로 이루어진 바 있다. 즉, 즉 삶의 질의 측정이 어려우므로 삶의 만족도를 삶의 질의 대리변수로 설정한 연구가 다수이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객관적 삶의 질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은 제외하고 객관적 삶의 질 수준을 산출하여 살펴보고자 한 점에서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접근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중고령자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삶의 질을 살펴본 연구는 국내에 정경희(2013)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는 중고령자의 삶의 질 지표 개발에 초점을 둔 연구로, 중고령자의 연령대별 삶의 질 비교와 유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의 특성을 통한 삶의 질 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가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가져오는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삶의 질 개념과 측정

1. 삶의 질 개념

가. 정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 개념은 경제지표 중심의 생활여건이나 삶의 조건을 파악하는 것의 한계로 등장한 개념이다. 경제적 여건만으로 개인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게 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삶의 영역에 걸쳐 포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증대하면서 삶의 질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한준 외, 2011).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삶의 양(Quantity of Lif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간의 삶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한 개념이다. 경제적인 부분 외에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삶의 전반에 대해 포괄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삶의 질을 명확하게 개념화할 수는 없다. 주로 삶의 만족도나 행복, 웰빙(well-being) 등의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경제지표 등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고 판단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개인이 개인의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판단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Wingo(1977)는 삶의 질은 다른 상태에 있는 것 보다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더 좋은 존재로서, 개선되고 있거나 악화되는 것 또는 좋거나 나쁜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오영희 외, 2005).

Hughes(1990)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에 관심을 두고 개인의 자율성, 만족감, 신체적·정신적 안녕 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환경의 질, 일상생활, 사회적 통합정도, 문화적 속성의 8가지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오영희 외, 2005).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으로 정의하였다.

삶의 질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 인간으로써 모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인간이 생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 비물질적인 것들의 가치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 지닌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경제사회발전과 환경의 변화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장영식 외, 2007).

삶의 질 개념에 대한 조작화 노력은 객관적 접근(스칸디나비언 접근)과 주관적 접근(미국식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객관적 접근법은 객관적 생활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평가 및 사회적 사실을 제시하는 반면, 주관적 접근은 개인의 주관적 웰빙을 강조하며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Noll, 2004; 한준 외, 2011에서 재인용).

객관적 접근법에 따른 삶의 질은, 경제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지식이나 사회적 관계, 관계망, 안전 등으로 구성된다. 개인의 주관적 웰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는 하나, 전체적인 사회 틀에서 접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삶의 질을 보는 요소들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야 된다고 보는 반면 객관적 지표에 대한 접근으로 개인이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접근이 간과되었다는 점이 단점으로 뽑힌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은 주관적 접근법인데, 이 접근법은 주로 미국에서 보는 시각에 기초하며, 주관적 지표를 우선적으로 강조한다. 이 접근법에서의 삶의 질은 '주관적 웰빙'으로 규정되는데, 개인에 의해 주관적으로 인식되고, 경험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개인이 삶의 질 평가의 가장 적합한 전문가이며, 가장 중요한 삶의 질 지표는 만족감과 행복감으로 본다. 그러나 개인의 주관적 인식으로 평가되는 삶의 질이므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며 충분한 대표성을 지니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Cobb,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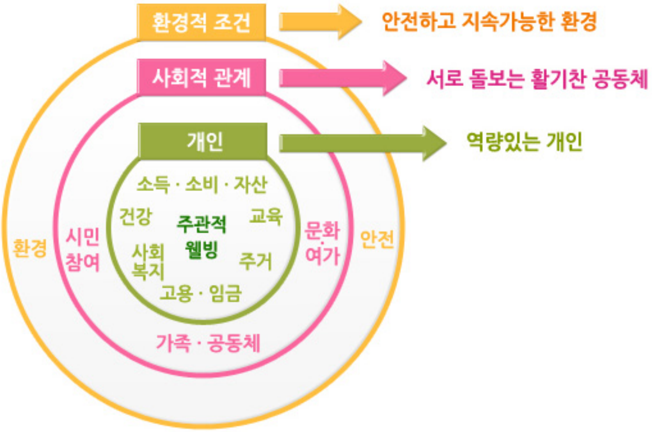
이렇게 대비되는 삶의 질 개념을 두고 주관적 접근 및 객관적 요소 모두를 고려하는 광의의 개념 및 측정을 위한 개념 조작화 노력이 있어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접근방법으로 삶의 질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 Zapf의 삶의 질 개념이 이에 해당된다. 객관적인 삶의 조건(물질적 측면, 근로조건,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등)과 주관적 웰빙(종합적이고 또한 특정 영역의 삶의 조건에 대한 평가)을 동시에 고려하는 개념이다(이희길, 심수진, 2009).

다양한 삶의 질 개념에 대한 접근이 있었으나, 삶의 질은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간 비교로 접근하여 객관적 접근법으로 보는 삶의 질이 다수였다. 1960~70년대는 주로 삶의 질을 경제적 차원을 넘어선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면, 최근에는 경제적 발전 뿐 아니라 사회발전, 사회 전체의 질, 지속가능성 개념이 추가되는 특징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통계청에서 국가 간 삶의 질 비교를 위해 다양한 항목을 지표화하고 이를 공표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삶의 질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구성하며, 개인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와 관련된 사회의 질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활용한다.

국가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지표 및 지수를 만들어 비교하는 경우, 작게는 ‘개인’ 차원의 삶의 질에서 ‘사회적 관계’에서의 삶의 질, 넓게는 ‘환경적 조건’에서의 삶의 질로 볼 수 있다. ‘개인’ 차원의 삶의 질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소득, 소비, 자산)이나 주거, 건강으로 보며, ‘사회적 관계’에서의 삶의 질은 시민참여, 문화 및 여가, 가족 및 공동체까지 포함한다. 가장 넓게는 ‘환경적 조건’에서의 삶의 질인데, 국가 차원에서의 환경이나 안전 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까지 포함하게 된다([그림 2-1] 참고).

[그림 2-1] 삶의 질 기본 틀



자료: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http://qol.kostat.go.kr)

통계청에서 산출하는 삶의 질에 대한 지표는 물질부분과 빗물질 부분으로 구성된다. 물질부문에는 소득·소비·자산과 고용·임금, 사회복지 및 주거가 포함된다. 비물질부문에는 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및 주관적 웰빙이 포함된다. 여기에서의 주관적 웰빙은 각 개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으로 평가하는가를 나타내며, 삶에 대한 만족도, 정서경험, 삶의 목적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미시적 접근에서의 삶의 질 개념이다.

〈표 2-1〉 각 영역 별 삶의 질 구성내용

구분	내용
물질	소득, 소비, 자산, 고용, 임금, 사회복지, 주거
비물질	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자료: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http://qol.kostat.go.kr)에서 재구성함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거시적 차원에서의 삶의 질 외에도 국내에서는 객관적 접근보다는 주관적 접근에서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다수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개인의 웰빙이나 삶의 만족도 또는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이나 주관적 삶의 만족도로 측정한다.

이 개념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며, 다르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 주로 삶의 질(Quality Of Life), 행복(happiness),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등 다양한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된다. 다만 삶의 질, 복지, 웰빙 개념은 객관적인 조건을 강조하는 반면,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행복 개념은 상대적으로 주관적 평가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절충주의적 경향이 일반적이다.

나. 삶의 질과 노후준비

앞서 '삶의 질'은 단순히 GDP나 경제적 빈곤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 속도와 중·고령층의 생활 실태 등에서 붉어진 사회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점차 많아지는 중·고령층의 생활을 위해 경제적 접근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히 노년기에는 4苦(빈곤, 질병, 무위, 고독)가 문제가 된다. 노동시장에서의 이탈로 인한 경제적 궁핍,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화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핵가족화 등의 이유로 노인부부가구나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이들 가구에서 배우자나 본인의 지인들의 사망 등으로 점차 관계에 있어 소홀해지며, 결국 아무런 즐거움 없이 생활하게 된다.

노년층의 4苦 중 빈곤과 관련, 일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의식주 모든 면에서 자립능력을 상실한 노후파산의 삶을 살고 있는데, 노후 파산을 맞이하는 노인 대다수는 착실하게 일하며 노후 준비를 해온 평범한 개인이며,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이런 현상

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국민연금공단, 2016).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이 점차 쇠약해지며 객관적인 건강상태도 눈에 띄게 하락한다. 노년기의 건강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보다는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건강은 재무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건강악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은 비교적 큰 재무적 손실을 야기하여 노후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경제적 문제나 건강문제 외에 여가나 대인관계 측면에서 노인의 삶을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일하는 것을 강조하고, 여가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는 것을 좋지 않게 인식한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로 여전히 우리나라는 여가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으며, 소극적 여가활동(예, TV보기)에 머무르고 있다.

마지막 차원은 고독이다. 생애주기로 봤을 때 노년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점차 가족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노년기에는 다양한 대인관계를 통해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하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대인교류의 폭이 축소되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게 되어 정서적인 면에서 취약해지고 있다. 실제 최근 발생하는 노인문제 중 하나가 고독사[2] 인 것을 보면, 비단 경제적 빈곤의 문제만이 아닌 노인의 삶 전반에 대한 관심과 이해 및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

노년기에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하고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의 주 목적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을 사전에 대처함에 있다. 이를 기반으로 노년기에 도래하기 전 미

2) 실제 2017년 8월 16일, 보건복지부는 자살과 고독사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17년 8월 16일. 복지부, 내년에 자살예방과 신설.. “자살, 고독사 담당”)

리 다방면의 분야에서 준비하고 대처하자는 데서 노년기 삶의 중요성을 다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은 노년기의 4苦로부터 어느 수준까지 벗어나있는지 객관적으로 보는 데 의의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하고 준비하고자 2015년 노후준비지원법이 마련되고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시기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 전단계인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실태 연구와 통계 작성,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중앙·지역의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여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분담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에 설치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에서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의 서비스는 노후준비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는 30대 후반부터 40대, 은퇴 직전의 50대와 60대 초반을 대상으로 주로 제공되고 있다. 노년기 4苦(빈곤, 질병, 무위, 고독)를 예방하고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부분에서 서비스가 제공(〈표 2-2〉)되며, 크게 노후준비수준 진단, 상담 및 교육서비스가 제공된다(〈표 2-3〉).

〈표 2-2〉 국민연금공단 노후설계 서비스 범위(분야별)

구분	주요 내용
재무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재원관리 방안 제시
건강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한 실천방안 제시
여가	여행, 평생교육,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여가정보 제공
대인관계	가족, 이웃 등과 건강한 소통을 위한 상황별 갈등관계 대처방법 소개

〈표 2-3〉 국민연금공단 노후설계 5종의 주요 서비스

구분	주요 내용
진단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영역별 노후준비 수준 진단
상담	생애주기별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
교육	생애주기별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연계	상담 후 심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역별 전문기관에 연계
사후관리	상담시 계획한 실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정보 제공

보건복지부에서는 노후준비지원법과 더불어 노년기의 삶의 질을 위해 2016년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계획(2016년~2020년)을 발표하였다.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에 의의를 가지며, 본인의 노후준비 수준을 진단하고 미리 노후생활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5개년 계획은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걸친 종합적 노후준비서비스, 믿을 수 있는 고객 맞춤형의 노후준비서비스 정책수단 구축, 노후준비서비스의 내적, 외적 여건 확충 및 강화, 노후준비 홍보 활성화 및 노후준비서비스 참여 확산 등을 포함한다. 또한 노후준비 관련 정책적 기반 강화는 중장년 및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유연안정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거주지역 중심의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 마련, 여가활동 및 가족관계 프로그램 활성화 등 4개 영역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 삶의 질 측정 관련 연구동향

가. 국제기구의 삶의 질 관련 지수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삶의 질과 관련된 지수는 몇 가지가 있다.

UNDP의 인간개발지수가 있다(HDI: Human Development Index,

UNDP 홈페이지 참고). UNDP에서는 길고 건강한 삶, 지식, 생활수준의 세 차원에서 삶을 평가하는 인간개발지수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세부항목으로는 기대수명, 성인문해율, 취학률, 1인당 국내 총 생산량으로 측정하며, 해당 지수는 길고 건강한 삶, 지식, 생활수준의 세 차원의 부문지수를 단순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음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측정하는 삶의 질이다(WHO 홈페이지 참고). WHO에서는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 체계의 맥락 속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시각'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척도(WHOQOL-100)를 만들었다. 해당 척도는 신체적 건강, 심리적 측면, 자립성, 사회관계, 환경, 종교 및 개인적 신념 차원으로 구성된다. 이 척도는 100여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으나 주관적인 개인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객관화하기 어렵고, 경제적 요인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다.

다음은 OECD인데, 2011년 보다 나은 삶 지수(BLI: Better Life Index)이다. 11개 범주의 20개 세부지표로 구성되는 이 지수는 물질적 생활조건과 삶의 질을 포함한다. 이 지수에서의 물질적 생활조건은 소득, 부, 직업, 주거를, 삶의 질은 건강, 일과 개인생활과의 균형, 교육, 공동체, 정부의 운영방식, 환경, 치안 및 전반적 삶의 만족도로 측정된다. 2012년에는 주거비, 연간 개인소득, 직장 안정성, 수질 등의 지표를 추가한 개선된 BLI를 발표하였다. 지수 구성의 범주는 동일하나, 행복의 지속가능성을 지표체계에 반영하였다(OECD Better Life Index 홈페이지 참고).

나. 국내 삶의 질 지수산출 관련 연구

현재 통계청에서는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종

합지수를 산출하고 있지는 않다. 종합지수 산출 과정에서는 가중값이 필요한데, 국가적 차원에서 각 지표에 가중값을 부여하는데는 무리가 있어[3], 학계에서 개별적으로 가중값을 부여하여 산출할 수 있다.

통계청 외에도 삶의 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표를 산출하고 있는데, 삶의 질 만을 명확하게 본 연구는 적고, 다수가 '행복' 이나 '웰빙' 을 측정하는 한 요소로 구성된다.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질 연구도 일부 수행되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07년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국내의 삶의 질 수준을 산출한 후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삶의 질과 관련된 대표지표를 선정하여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였다. 삶의 질 수준은 보건, 경제, 교육, 노동, 환경, 가족, 안전, 정보통신 등 8개 분야에서 선정된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지수별 점수를 산정한 뒤 인자분석을 이용하여 각 분야별 가중지수를 산출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하였다.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삶의 질과 유사한 개념인 '행복' 을 주제로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를 산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행복' 을 심리적 안정, 가족·결혼, 개인적 관계, 지역사회환경, 일상생활, 경제적 안정, 일, 건강, 주거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행복지표별 우선순위와 영향정도를 평균점수로 활용하였으며 종합점수를 산정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이 많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2010년부터 2011에 걸쳐 부산지역의 거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연구하였다. 역시 아동청소년의 '행복' 을 국가정보, 권리증진 및 기회

3) 통계청에서는 연구자의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종합지수 산출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통계청 홈페이지, http://qol.kostat.go.kr).

균등 강화, 안전 및 보호, 건강증진, 역량개발, 인프라 구축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객관적 지표는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변화추이 또는 증감률, 구성비, 발생률 등의 백분율로 지수화하여 개별지수만을 산출하였고, 주관적 지표의 지수는 원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값으로 개별 지수를 산출 후, 100점 환산 점수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영역별 지수를 산출하고, 마지막으로 각 영역별 지수에 영역별 가중치를 곱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삶의 질 향상위원회에서는 2012년부터 우리나라 농어촌거주자의 삶의 질을 볼 수 있는 지표 및 지수를 생산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농어촌이라는 지역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삶의 질과 지역발전지수는 생활환경, 지역경제, 지역사회, 교육, 환경, 보건복지, 문화여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지수는 표준편차 정규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3년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를 통해 지수를 개발하였는데, 크게 개인, 가정·학교·지역사회, 제도 수준에서 보았다. 해당 연구에서 지표가중치를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수를 합산하기 위해 모든 지표들의 표준편차 정규화 작업을 하여 표준점수를 산출한 후, 지표 항목별로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중·고령자에 대한 삶의 질 지표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행되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2년 진행된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를 확정하면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중·고령층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가족사회관계, 경제상태, 건강상태, 사회참여 영역으로 구분하고 16개 개별지표를 선정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각 영역별로 삶의 질 점수를 산출하고 각 지표별로 표준화작업을 시도하였다. 그 후 삶의 전반적 만족도 변수와 각 개별지표와의 상관관계 지수를 산출하여 각 지표별 영역 내 비중을 계산하

였다.

다. 지수화 방법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각 지수마다 산출의 장·단점이 있으며, 연구의 특징에 맞춰 선택하여 산출하는 경향이 있다.

지수를 산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단순하게 구성항목(변수)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산된 지수를 단순히 평균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종합지수는 적절한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측정되는 자료의 성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각 항목이 종합지수에 미치는 중요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방법으로 가중평균을 이용한 지수를 고려할 수 잇는데, 이는 각 항목이 종합지수에 미친 정도의 차이를 계산상 고려한 지수로서, 가중평균지수라고 하는데 이 때 고려된 각 개별지수의 비중이 바로 가중치이다. 변수들 간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상관관계의 정도를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각각의 항목 간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야 되는 단점이 있으며, 문항선정의 과정을 통해 악용 또는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상관계수를 이용한 지수산출 방법이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 단순평균이나 가중평균을 이용한 지수는 변수들 간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상관관계의 정도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상관계수를 이용한 종합지수 산출 방법은 먼저 개별항목과 각 개별항목으로부터 도출된 성분과의 상관계수를 산출(상관계수의 합을 1로함)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하게 된다. 이 방법은 각 개별 지수들과 전체 지수가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점이 있으나, 평균을 이용한 산출 방식보다는 객관적인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한 가중지수 산출방법이다. 주성분분석은 원래 다변량 변수들의 전체 분산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낮은

차원의 변수들로 원래의 자료를 변환하는 분석기법으로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주성분분석은 복수의 지표나 영역이 하나의 주성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각 지표나 영역에서 부여된 요인부하량값을 각각의 지표나 영역이 하나의 주성분에 기여하는 상대적 중요도로 판단하는 방법이다(하정화 외, 2011). 주성분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제1주성분은 분석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주성분 분석 기법을 응용하여 서로 상관되어 있는 각각의 항목(변수)들을 하나의 지수값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제1주성분 점수법(pricipal component scoring)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장영식 외, 2007).

다음은 인자분석을 이용한 가중지수 산출방법이다. 제1인자 추출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방법은 관찰할 수 없는 가설적인 인자는 하나의 확률변수로 생각하고, 인자점수는 모형에 따른 확률적 인자에 대한 추측값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인자점수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Thomson의 회귀적 방법과 Bartlett의 가중회귀방법 등이 있으나, 주로 Thomson의 방법에 의해 구해진 인자점수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인자분석의 주 목적은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서로 성질이 유사한 변수들끼리 묶어 고차원의 변수를 저차원으로 축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수를 산출할 때에는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로부터 주요 인자를 추출하고, 주요 인자에 대한 선형모형으로부터 변수별 가중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장영식 외, 2007).

표준편차를 정규화하여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도 있는데, 해당 방법은 지수값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크지 않으나 비교 대상의 서열화가 가능하고 단위가 다른 지표간 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표준편차 정규화 방법으로 지표값들을 표준화하고, 각 지표의 표준화지수를 양수로 전환한다. 전체 지표값들 중 최소값의 역수를 지표값에 더하여 전체 지표값들을 양수로 전환하고 각 부문별로 지표값들을 평균하여 부문별 지수를 산출한다. 이후 부문별 지수에 부문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지수를 산

출하면 된다.

앞서 설명한 방법 외에도 지수를 산출하는 데 여러 방법이 있다. 중요도 평가를 가중치로 활용하여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지표를 구성하는 각 항목에 대해 델파이 방법 등을 활용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중요도를 측정하고, 산출된 평균값들의 합을 1로 놓고 가중치를 산출하여 평가된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지수를 산출한다(하정화 외, 2011). 이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회귀계수를 활용하여 가중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 회귀분석으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회귀방정식에 의해 회귀계수를 산출하고, 독립변인에 대한 종속변수의 상대적 설명력에 따라 가중지수를 산출한다(하정화 외, 2011). 위 두 방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방법이 있는데, 이 분석은 다수의 기준 하에서 평가되는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자주 이용되는 방법으로,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에 의한 판단을 통해 의사결정의 중요성 및 우선순위를 판단하는데 사용된다(조근태, 2003). 해당 방법은 분석과정에서 정책결정자와 이해관계자의 심도 있는 논의와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거쳐 중요도를 결정하는 등의 체계적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실제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하정화 외, 2011).

3. 삶의 질 산출

본 연구의 목적은 삶의 질의 비교를 통한 함의점을 찾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며, 또한 구성요소 간 비교가능성을 위한 계량화 및 지수화가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고령자의 삶의 질

을 계량화하여 산출한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삶의 질 지표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삶의 질 수준이 공적연금 수급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중고령자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의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중고령자의 삶의 질 계량화 및 산출방법은 기존 연구의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삶의 질의 지수화와 관련하여 앞서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나, 중 · 노년층의 삶의 질을 영역별, 그리고 종합지수까지 산출하여 참고할 수 있는 연구로는 정경희 외(2013)가 개발한 중·노년층의 삶의 질 지표체계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정경희 외(2013)가 개발한 '중·노년층의 삶의 질 지표체계'에서 활용한 방법을 차용하였다.

정경희 외(2013)의 연구에서 활용한 삶의 질 지표는 노년층의 삶의 질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계량화하기 위한 연구(정경희, 2012)를 기초로 하여 중·노년층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한 것으로, 사회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의 지표여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 각각에 대한 계량적 파악이 가능한 개별지표만을 포함하였다.

이 지표에서는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객관적인 지표만 포함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그 수준이 변화될 수 있는 지표는 제외되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긍정/부정)이 명확하지 않은 지표는 제외되었다(정경희 외, 2013). 또한 지수화과정에서 개별 지표가 삶의 질을 종합한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변수와 가지는

---

4)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의 노후준비진단지표의 경우도 영역별 수준의 진단이 가능하나, 주관적·객관적 항목이 혼재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자 차원의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관련성을 고려해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개별 지표 및 영역이 삶의 질을 나타내는 정도가 반영되도록 설계하였다. 이렇게 연구된 '중·노년층의 삶의 질 지표체계' 는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4대 영역(가족·사회관계, 경제상태, 건강상태, 사회참여)과 각 영역별로 계량적 파악이 가능한 16개의 개별 지표가 포함되며, 4대 영역을 종합한 종합지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표 2-4〉).

'중·노년층의 삶의 질 지표체계' 의 '가족사회 관계' 영역은 중·고령자가 고독이라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영역이며, '경제상태' 영역은 노년기의 빈곤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영역으로, 소득, 자산 및 노후소득준비 실태를 반영한다. '건강상태' 영역은 건강이 삶의 질의 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과 더불어 건강행위를 파악한다. '사회참여' 영역은 무위의 최소화가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노년기의 특수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영역이다(정경희 외, 2013)

본 연구가 중·고령층의 삶의 질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노년층의 삶의 질 지표체계' 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의 삶의 질 계량화가 유일한 지표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용하여 지수를 산정하고 공적연금 수급특성별로 비교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가족·사회관계, 경제상태, 건강상태, 사회참여의 4대 영역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종합적 삶의 질 수준 제고를 위한 영역별 시사점 제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경희 외(2013)가 개발한 중·노년층의 삶의 질 지표체계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이 지표체계를 적용하되,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을 반영하여 '경제상태영역' 을 '소득·자산상태영역' 으로 명명함으로써 개별지표들이 나타내는 영역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표 2-4〉 삶의 질의 재차원별 개별지표

노년기의 4苦	영역	개별지표	비고
고독	1. 가족사회 관계	1-1. 배우자유무 1-2. 자녀와의 물리적 접근성 1-3. 생존 형제자매수 1-4. 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	사회적 연계망을 구성하는 주요 tie별 지표 선정
빈곤	2. 소득·자산 상태	2-1. 가구균등화소득 2-2. 가구균등화자산 2-3. 자산의 유동성(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 2-4. 연금 가입 실태(공적연금과 개인연금(종신보험 포함))	- 현재의 경제상태: 소득, 자산 -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과 준비: 유동성, 다층적 노후 소득준비
질병	3. 건강상태	3-1. 만성질환수 3-2. 우울증 3-3. 활동제한 정도 3-4. 건강행위 실천정도(운동과 건강검진 수검여부)	- 건강상태 (신체적, 정신적 측면)
무위	4. 사회참여	4-1. 적절한 경제활동 참여 4-2. 단체활동참여수 4-3. 공연문화 향유여부 4-4. 여행경험 여부	다양한 사회참여방법 반영

출처: 정경희 외(2013).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나. 사용자료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년도 본조사 자료(2015년)와 6차년도 부가조사 자료(2016년)을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중·노년층의 삶의 질의 지표와 지수화를 개발한 정경희 외(2013)의 경우 고령화패널자료 3차년도(2010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공적연금 수급특성에 따른 중·고령자의 삶의 질을 보고자 한

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국민연금공단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2005년부터 전국의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속한 5,110가구와 50세 이상 개인 8,689명을 원표본으로 구축하여 2년마다 중고령자의 노후소득준비 및 경제상태 등을 측정하고 있는 조사이며, 2013년 표본고령화로 인한 50대 표본의 추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해당 자료는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수급이 발생하는 50세 이상을 조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조사 자료이므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공적연금의 가입 및 수급과 관련하여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특수직역연금의 가입 및 수급 정보를 매우 상세히 측정하고 있어 공적연금 종류에 따른 비교가 가능하다. 또한 공적부조인 기초연금의 수급정보도 측정됨에 따라 공적연금 가입이 이루어지지지 않은 중고령자의 기초연금 수급자와의 비교 또한 가능하다. 이 조사의 조사대상의 연령대와 측정내용을 고려할 때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자료를 본 연구에 활용하기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최근 2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지표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6차년도 본조사 자료(2015년)와 6차 부가조사(2016년) 자료를 연결하여 사용하였는데[5], 가장 최근에 조사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차 본조사와 6차 부가조사 모두에 응답한 7,584명의 응답자료만 분석에 사용[6]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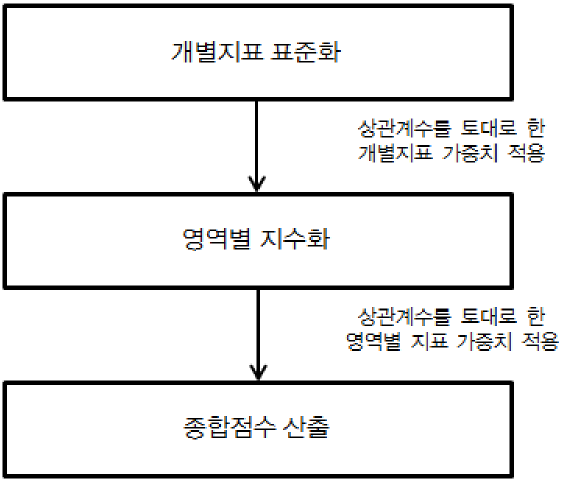
5)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본조사는 홀수년도에, 부가조사는 짝수년도에 실시하고 있다. 본조사에서는 가구 및 개인의 경제상태, 고용, 은퇴, 노후, 연금, 공사적 이전소득 등의 고정된 내용을 반복조사한다. 부가조사는 본조사와 본조사 사이에 진행하며, 본조사에서 측정되지 않았던 특정 이슈 등을 측정해왔으며 6차 부가조사(2016년)부터는 비재무적 노후준비 실태(여가, 건강, 대인관계 등)를 고정하여 반복조사하기 시작했다. 국민노후보장패널 본조사와 부가조사의 조사내용은 국민노후보장패널 홈페이지(kreis.or.kr)에 공개된 조사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6) 응답자료 중 대리응답된 자료는 제외하였으며, 본 연구가 공적연금 수급정보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표본의 횡단면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았다.

다. 지수화 과정

본격적으로 삶의 질을 지수화하는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삶의 질의 지수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개별 지표의 표준화, 영역별 지수 산정, 종합 지수 산정의 단계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삶의 질 산출과정



이러한 과정을 거쳐 표준화된 개별지표, 영역별 지표, 종합지수가 산출되며, 모두 비교 가능하도록 100점 만점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지수화 과정에서 전반적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변수와의 개별 문항 및 영역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1) 개별 지표 표준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가 사회조사를 통한 2차 자료이므로, 개별 지표별 측정방법과 변수값이 다르다. 삶의 질의 지수화를 위해서는 먼저 삶

의 질을 구성하는 개별 지표별를 비교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즉, 측정의 방식이 다른 개별 지표들을 100점 만점의 형태로 표준화시켜 개별 지표의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다.

〈표 2-5〉는 삶의 질 구성영역별 개별 지표의 표준화를 위해 변수값을 조작한 정보를 나타내며, 이는 정경희 외(2013)의 연구의 중노년층의 삶의 질 조작화 기준을 참고하였다. 표준화를 위해 부여한 변수값은 측정 수준이 다른 지표간 비교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준 것으로, 변수값은 그 자체로 갖는 의미보다는 개별 지표의 분포를 보여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 영역별 지수화와 종합 점수 산출 과정에서 지표의 가중치가 적용됨으로써 개별 지표의 표준화 점수는 조정되게 된다.

개별 지표의 표준화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가족사회 관계' 영역은 배우자 유무, 자녀와의 근접성, 생존 형제·자매, 친구·이웃의 네 가지 개별 지표로 구성된다. [지표 1-1]은 배우자 유무로, 배우자가 없을 경우 10점을 부여하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0점을 부여하였다. 배우자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측정 기준에 따라 사실혼도 포함하였으며, 이혼·사별·미혼은 모두 무배우자로 간주하였다. [지표 1-2]는 자녀와의 근접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자녀와의 동거여부와 왕래 및 연락 빈도를 토대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자녀와 동거할 경우 100점을 부여하였으며, 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 왕래 및 연락이 거의 없어 '몇 년 에 한번' 이루어지는 경우 10점을 부여하였으며, 그 밖의 경우 55점을 부여하였다. [지표 1-3]은 생존하고 있는 형제·자매로, 생존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100점, 생존하는 형제나 자매가 없는 경우 10점을 부여하였다. [지표 1-4]는 친구·이웃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현재 친구나 이웃이 있을 경우 100점을, 친구나 이웃 모두 없다는 응답에는 10점을 부여하였다.

'소득 · 자산상태' 영역은 가구균등화소득, 가구균등화자산, 자산의 유동성, 연금 가입실태의 네 가지 개별 지표로 구성된다[7]. [지표 2-1]은

가구균등화소득으로, 가구의 지난 1년간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를 고려한 균등화소득으로 환산한 후 5분위로 나누고 1분위 10점, 2분위 32.5점, 3분위 55점, 4분위 77.5점, 5분위 100점을 부여하였다. [지표 2-2]는 가구균등화 자산 수준을 의미하는데,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원수를 고려한 균등화자산으로 환산한 후 5분위로 나누어 1분위 10점, 2분위 32.5점, 3분위 55점, 4분위 77.5점, 5분위 100점을 부여하였다. [지표 2-1]과 [지표 2-2]는 모두 1분위가 가장 수준이 낮음을 의미하며, 5분위가 가장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분석대상 내에서의 수준별 분위이므로, 가장 높은 5분위라 하더라도 중고령자라는 분석대상 특성을 고려한다면 일반 가구의 소득과 자산 수준에 비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표 2-3]은 자산의 유동성으로, 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금융자산이 없는 경우 10점을 부여했다. 금융자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인 경우 55점을 부여했으며, 금융자산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 100점을 부여하였다. [지표 2-4]는 연금가입 및 수급실태로, 노후소득확보를 위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종신보험 포함)의 가입 및 수급상태를 의미한다.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가입 또는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0점을 부여하였으며, 둘 중 하나만 가입이나 수급이 이루어진다면 55점을 부여하였다.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가입이나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100점을 부여하였다. 공적연금 수급 특성을 토대로 삶의 질 비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적연금 수급자의 경우 [지표 2-4]의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지표에서는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사적연금의 가입 및 수급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 지표의 수준이 높다고 할

7) 삶의 질의 지수산정은 개인 단위의 지수산정을 통한 비교가 이루어지므로 [지표 2-1]과 [지표 2-2]의 경우 개인별 소득과 자산으로 산출되어야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 개인별 소득과 자산으로 산출하고자 하였으나 항목 무응답 등으로 인한 한계가 있어, 선행연구(정경희 외, 2013)와 마찬가지로 가구단위 소득과 자산을 토대로 가구원수를 고려한 균등화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수는 없다.

'건강상태' 영역은 만성질환 수, 우울증 여부, 활동제한 정도의 지표들로 구성된다. [지표 3-1]은 만성질환 수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질환이 3개 이상 있을 경우 10점을 부여하였으며, 만성질환 수가 2개인 경우 40점을 부여하였고, 만성질환 수가 1개인 경우 70점을 부여하였고,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 100점을 부여하였다. [지표 3-2]는 우울증 여부이다. 국민노후보장패널 본조사의 중고령자의 심리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20문항의 CES-D 척도의 응답점수를 토대로 우울 여부를 판정하였고, 판정 결과를 토대로 우울에 해당하는 경우 10점을 부여하였고, 우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0점을 부여하였다. [지표 3-3]은 활동제한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10점을 부여하였고, 활동에 제한이 없는 경우 100점을 부여하였다. [지표 3-4]는 건강행위 실천여부로, 규칙적 운동(하루 30분, 일주일에 150분) 운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정기적 건강검진(2년에 한번)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토대로 하였다. 규칙적 운동과 정기적 건강검진 둘 다 하고 있지 않을 경우 10점을 부여하였으며, 둘 중 하나만 하는 경우 55점을 부여하였고, 둘 다 하는 경우 100점을 부여하였다.

'사회참여' 영역은 적절한 경제활동 참여, 단체활동 참여수, 공연문화 향유 여부, 여행 경험 여부의 지표들로 구성된다. [지표 4-1]은 적절한 경제활동 참여이다[8]. 경제활동 여부와 균등화소득분위를 토대로 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10점을 부여하였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소득분위를 토대로 1분위 32.5점, 2분위 55점, 3분위

---

8) [지표 4-1]의 적절한 경제활동의 경우 대상자에 따라 영역이 달리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을 무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참여의 영역에 포함시킨 선행연구(정경희 외, 2013)의 기준을 따랐다. 참고로 30~40대의 은퇴를 앞둔 사람들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진단지표에서는 경제활동 관련 내용은 재무영역에 포함된다.

77.5점, 4분위 100점을 각각 부여하였다. [지표 4-2]는 단체활동 참여수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없는 경우 10점을 부여하였으며, 참여 단체수가 1개이면 40점을 부여하고, 참여 단체수가 2개인 경우 70점을 부여하였다, 참여 단체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00점을 부여하였다. [지표 4-3]은 공연문화 향유 여부로, 지난 1년간 공연이나 문화생활을 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10점을 부여하였으며, 공연이나 문화생활 경험이 1~2회인 경우 55점을 부여하였다. 지난 1년간 3회 이상의 공연이나 문화생활 경험이 있는 경우 100점을 부여하였다. [지표 4-4]는 여행경험 여부로, 지난 1년간 여행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10점을 부여하였으며, 1년간 1~2회의 여행 경험이 있다면 55점을 부여하였고, 1년간 3회 이상의 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 100점을 부여하였다.

〈표 2-5〉 개별 지표의 표준화를 위한 조작적 정의

영역	지표	변수값 및 점수		비고	
		변수값	점수	빈도 (명)	비중 (%)
1. 가족·사회관계	1-1. 배우자유무	없음	10	1,958	25.8
		있음	100	5,626	74.2
	1-2. 자녀와의 근접성	왕래와 연락 거의 없음 (몇 년에 한번)	10	93	1.2
		왕래와 연락 있음	55	4,398	58.0
		자녀와 동거	100	3,093	40.8
	1-3. 생존 형제·자매	없음	10	349	4.6
		있음	100	7,235	95.4
	1-4. 친구·이웃	없음	10	51	0.7
		있음	100	7,533	99.3
2. 소득·자산 상태	2-1. 가구균등화소득	1분위	10	1,517	20.0
		2분위	32.5	1,516	20.0
		3분위	55	1,518	20.0
		4분위	77.5	1,511	19.9
		5분위	100	1,522	20.1
	2-2. 가구균등화자산	1분위	10	1,523	20.1
		2분위	32.5	1,511	19.9
		3분위	55	1,516	20.0
		4분위	77.5	1,520	20.0
		5분위	100	1,514	20.0
	2-3. 자산의유동성	없음	10	2,295	30.3
		10% 미만	55	2,264	29.9
		10% 이상	100	3,025	39.9
	2-4. 연금가입 및 수급 실태	없음	10	4,174	55.0
		공적, 개인 둘 중 하나	55	3,058	40.3
		공적, 개인연금 모두	100	352	4.6

영역	지표	변수값 및 점수		비고	
		변수값	점수	빈도 (명)	비중 (%)
3. 건강 상태	3-1. 만성질환수	3개 이상	10	854	11.3
		2개	40	1,270	16.7
		1개	70	1,984	26.2
		0개	100	3,476	45.8
	3-2. 우울증여부	우울	10	2,109	27.8
		비우울	100	5,475	72.2
	3-3. 활동제한	제한 있음	10	434	5.7
		제한 없음	100	7,150	94.3
	3-4. 건강행위 실천	운동과 검진 둘 다 안함	10	975	12.9
		운동과 검진 둘 중 하나	55	2,692	35.5
		운동과 검진 둘 다 함	100	3,917	51.6
4. 사회 참여	4-1. 적절한 경제활동 참여	비참여	10	3,908	51.5
		참여, 소득 1분위	32.5	1,040	13.7
		참여, 소득 2분위	55	855	11.3
		참여, 소득 3분위	77.5	863	11.4
		참여, 소득 4분위	100	918	12.1
	4-2. 단체활동참여수	없음	10	2,262	29.8
		1개	40	4,170	55.0
		2개	70	964	12.7
		3개 이상	100	188	2.5
	4-3. 공연문화 향유여부	안함	10	6,973	91.9
		1년 1~2회	55	43	0.6
		1년 3회 이상	100	568	7.5
	4-4. 여행경험 여부	안함	10	6,236	82.2
		1년 1~2회	55	458	6.0
		1년 3회 이상	100	890	11.7

2) 영역별 지수화

개별 지표의 표준화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상관계수를 적용한 지표별 점수와 개별 지표의 영역 내 비중을 산출하였다. 개별 지표의 상관계수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 측정된 전반적 삶의 만족도 변수와 개별 지표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산출된 상관계수이며, 영역내 비중은 개별 지표의 상관계수가 영역에서 갖는 상대적 비중을 의미한다.

각 영역별로 가장 비중이 높은 개별지표를 살펴보면, 가족·사회관계 영역에서는 배우자 유무 40.4%의 비중을 갖으며, 다음으로 생존 형제·자매 24.1%, 친구·이웃 20.7%로 나타났으며, 자녀와의 근접성은 14.8%로 영역내 비중이 가장 낮았다.

소득 · 자산상태 영역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지표는 가구균등화 소득으로 31.3%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가구균등화자산 28.7%로 나타났다. 자산의 유동성은 22.0%의 비중을 나타냈으며, 연금가입 및 수급실태의 경우 18.0%의 비중을 나타냈다.

건강상태 영역을 살펴보면, 우울증 여부의 경우 영역내 비중이 31.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만성질환수이며 영역내 비중은 2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제한의 경우 25.8%의 비중을 나타냈다. 건강행위 실천은 16.0%의 영역내 비중을 나타냈다.

사회참여 영역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표는 단체활동 참여수이며 영역내 38.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적절한 경제활동 참여로, 이 지표는 사회참여 영역내에서 36.4%의 비중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문화 향유여부는 영역내 비중이 13.3%였으며, 여행경험 여부는 12.0%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패널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정경희 외(2013)의 연구의 개별 지표별 상대적 비중을 비교해보면, 가족·사회영역은 배우자유무, 소득·자산상태영역에서는 가구균등화소득, 사회참여영역에서는 단체활동 지표가 각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다. 건강상태영역의 경우 정경희 외(2013)의 연구에서는 활동제한의 상대적 비중이 가장 높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울여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사용한 자료의 조사대상 및 측정방식의 차이 또는 측정시점의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다.

〈표 2-6〉 개별 지표의 표준화 점수 분포와 상대적 비중

영역	지표	표준화 점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값	영역내 비중
1. 가족 ·사회 관계	1-1. 배우자유무	76.8	39.4	0.213	0.404
	1-2. 자녀와의 근접성	61.2	32.3	0.078	0.148
	1-3. 생존 형제·자매	95.9	18.9	0.127	0.241
	1-4. 친구·이웃	99.4	7.4	0.109	0.207
2. 소득·자산 상태	2-1. 가구균등화소득	55.0	31.8	0.308	0.313
	2-2. 가구균등화자산	55.0	31.8	0.283	0.287
	2-3. 자산의유동성	59.3	37.4	0.217	0.220
	2-4. 연금가입 및 수급실태	32.3	26.3	0.177	0.180
3. 건강상태	3-1. 만성질환수	72.0	31.1	0.257	0.263
	3-2. 우울증여부	75.0	40.3	0.312	0.319
	3-3. 활동제한	94.8	20.9	0.253	0.258
	3-4. 건강행위 실천	72.5	31.6	0.157	0.160
4. 사회참여	4-1. 적절한 경제활동 참여	36.7	32.9	0.242	0.364
	4-2. 단체활동참여수	36.4	21.4	0.252	0.380
	4-3. 공연문화 향유여부	17.0	23.9	0.088	0.133
	4-4. 여행경험 여부	23.3	29.9	0.082	0.123

개별 지표의 표준화점수와 상관분석을 통해 산출된 상관계수를 통해 영역별 지수화 작업을 거쳤는데, 영역별 점수는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하였다.

영역별 점수 = sum{(영역 내 표준화된 개별 지표 ×영역에서 차지하는 개별 지표의 비중)} [예시] 영역1(가족·사회관계) 점수 = (지표1-1 개별값×영역1에서 지표1-1이 차지하는 비중(=0.404)) + (지표1-2 개별값×영역1에서 지표1-2가 차지하는 비중(=0.148)) + (지표1-3 개별값×영역1에서 지표1-3이 차지하는 비중(=0.241)) + (지표1-4 개별값×영역1에서 지표1-4가 차지하는 비중(=0.207))

이러한 방식으로 영역별 점수를 계산한 후 삶의 만족도와 갖는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각 영역이 갖는 상대적 비중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한 영역별 점수와 영역별 비중은 〈표 2-7〉과 같다.

각 영역별 점수는 가족·사회관계(83.7점) 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건강상태(78.9점), 소득·자산상태(51.9점), 사회참여(32.3점) 영역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영역별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즉 가족·사회관계 및 건강상태 영역과 같이 개인의 노력보다는 현재 가족이나 질환의 존재 등으로 주어진 상태를 측정하는 영역의 점수가 높은 편이었고, 반면 개인의 노력을 통해 얻어진 소득과 자산 등의 경제상태와 현재 참여와 노력을 요하는 사회참여 영역의 점수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서 각 영역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에서 각 영역이 종합점수에서 갖는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면 건강상태, 소득·자산상태, 사회참여, 가족·사회관계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정경희 외(2013)의 연구에서의 영역별 상대적 비중과 비교해볼 때,

건강상태영역, 소득·자산상태영역, 사회참여영역, 가족·사회관계영역 순으로 나타난 점은 동일하다.

〈표 2-7〉 영역별 점수 분포와 상대적 비중

	점수 및 비중			
	점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값	종합지수내 비중
1. 가족·사회관계	83.7	18.4	0.244	0.178
2. 소득·자산상태	51.9	21.9	0.378	0.275
3. 건강상태	78.9	19.2	0.430	0.313
4. 사회참여	32.3	17.2	0.321	0.234

〈표 2-7〉을 보면, 삶의 질 영역별 평균점수와 종합지수 내 비중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있어 건강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역 평균 점수도 높다.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소득·자산상태는 건강 다음으로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 점수는 높지 않은 편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영역은 사회참여로 나타났으나, 영역 평균 점수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사회영역은 영역 평균점수는 높았으나 삶의 질에 있어 중요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중고령자의 삶의 질의 영역별 수준과 중요도는 서로 다르므로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대한 접근 시 이러한 이해가 전제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고민할 때 영역별 수준과 중요도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표 2-8〉참고).

〈표 2-8〉 삶의 질 영역별 점수 수준과 종합적 삶의 질에서 갖는 중요도 순위

	가족사회관계	소득자산상태	건강상태	사회참여
점수 수준	1	3	2	4
종합적 삶의 질에서 갖는 중요도	4	2	1	3

3) 삶의 질 종합점수 산출

각 영역별 지수는 그 자체로 영역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합산하여 종합지수로 산출한다면 각 중노년층 개개인의 삶의 질 수준을 판단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정경희 외, 2013). 삶의 질 종합점수는 삶의 만족도와 각 영역별 점수의 상관계수를 토대로 한 영역별 비중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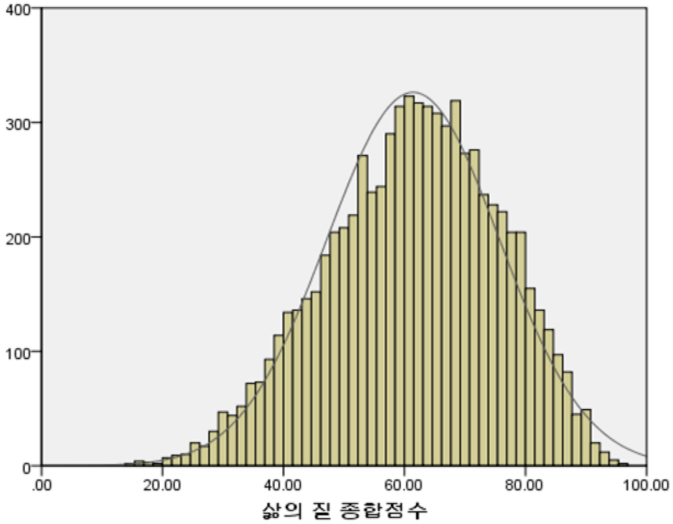
삶의 질 종합점수=sum{(영역별 점수×영역별 상대적비중)}

[예시] (영역1 점수×영역1의 상대적 비중(=0.178))
+ (영역2 점수×영역2의 상대적 비중(=0.275))
+ (영역3 점수×영역3의 상대적 비중(=0.313))
+ (영역4 점수×영역4의 상대적 비중(=0.234)

종합점수를 산출한 결과, 중고령자의 삶의 질 종합점수의 분포는 [그림 2-3]과 같이 종모양의 정규분포 형태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100점 만점에 61.4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령화패널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정경희 외(2013)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 종합점수의 평균이 54.0점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에서의 삶의 질 종합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각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데이터의 차이와 고령화패널 3차년도 자료의 측정년도가 2010년,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및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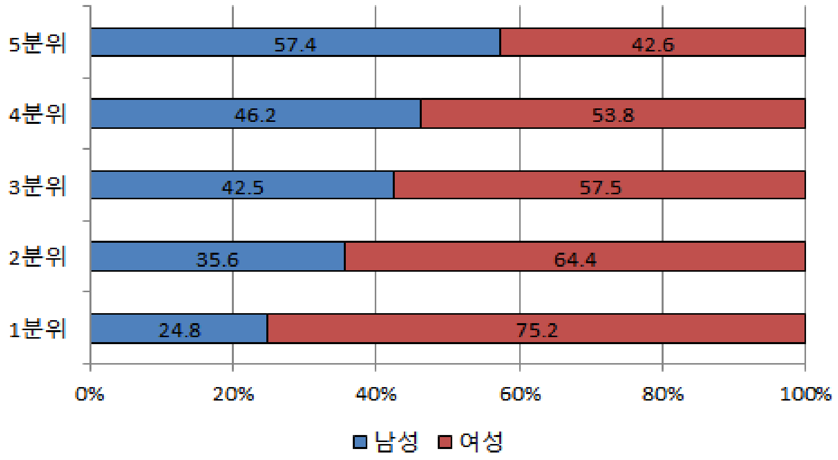
차 부가조사 자료의 측정년도가 2015, 2016년으로 조사시점의 차이 등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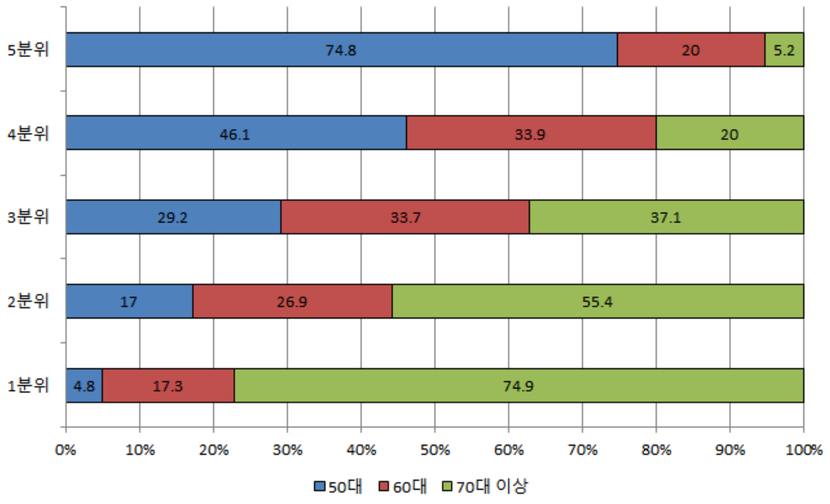
[그림 2-3] 삶의 질 종합점수 분포



[그림 2-4]는 삶의 질 종합점수를 5분위로 나누고, 성별·연령별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중고령자 가운데 여성, 70대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삶의 질 수준이 낮다는 점을 기초적인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4] 삶의 질 종합점수 5분위 성별, 연령별 분포





Ⅲ. 공적연금 수급특성에 따른 삶의 질 분석

공적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사람은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42.3%(통계청 보도자료, 2016)로, 공적연금의 수급률은 65세 이상 노인의 과반수에 못 미치고 있다.

공적연금 중 1960년부터 비교적 일찍 도입한 특수직역연금은[9]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에 비해 어느 정도 충분한 노후소득이 보장되고 있으나,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 등 특정 직군에게만 해당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1988년에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1992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농어촌 지역, 1999년 도시 지역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전국민 연금시대를 열었으나, 현재 노후시기를 보내는 사람들 가운데는 제도시행이 오래 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생활비로 충분하지 못한 연금액을 받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공적연금제도의 사각지대와 낮은 급여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특성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을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본 이유는 첫째,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출생년도별(1952년생까지: 만60세, 1953년생부터: 만61~65세), 10년 이상 가입 시 60세 이전에 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연령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수급연령의 기준이 없는 유족연금 수급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재직기간이 우선시 되어 수급연령에 차이를 보이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 역시 공적연금에 포함되므

---

9) 1960년 공무원연금이 도입되었고, 1963년에 군인연금이 공무원연금에서 분리되었으며, 1975년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별도로 도입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하고 제도 도입이후 적용대상을 넓혀감에 따라 1999년 전국민 연금시대가 되었다.

로, 본 연구에서는 이 모두를 고려하여 분석연령대를 50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적연금 수급특성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절에서는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삶의 질을 살펴보았다. 연령대 별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삶의 질 에서는 단순히 공적연금 수급여부만을 고려하였는데, 공적연금 수급자는 ‘수급’ 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공적연금 비수급자는 공적연금 가입자를 포함하여 ‘수급’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음은 공적연금 수급자와 공적연금 사각지대간 삶의 질을 비교했는데, 여기에서의 공적연금 수급자는 ‘수급’ 하고 있는 사람이며,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수급’ 도 ‘가입’ 도 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2절에서는 공적연금의 종류별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간 삶의 질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2절에서의 수급자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의 퇴직(역)연금 수급자를 의미한다.

3절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별 삶의 질을 살펴보았는데, 국민연금 급여종류 중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급여수준별 삶의 질 비교와 유족연금 수급자 각각 급여수준별 삶의 질을 살펴보았다.

4절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만 수급받는 경우와 국민·기초연금의 동시수급자의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집단간 삶의 질의 통계적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는 집단간 불균형 사례수를 고려하여 GLM-test를 실시하였다.

1.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삶의 질 수준 분석

본 절에서는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삶의 질 수준이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적연금 가입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연령대별 공적연금 수급여부만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공적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후 공적연금 수급자와 공적연금 가입도 수급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의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가. 연령대별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삶의 질 비교

〈표 3-1〉은 50대의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개별 지표 수준을 나타낸다. 본 분석에서는 수급여부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비수급자의 대다수가 가입자이며, 50대에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수급자 가운데 유족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표 3-1〉의 [지표 1-1]배우자유무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3-1〉 50대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삶의 질 영역별 개별 지표 점수

(단위: 점)

영역	개별지표	수급자 (n=70)		비수급자 (n=1,14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가족·사회관계	[지표 1-1]배우자유무	47.3	44.7	88.3	30.3
	[지표 1-2]자녀와의 물리적 근접성	74.6	32.5	74.1	32.0
	[지표 1-3]생존 형제자매	97.4	15.1	99.0	9.5
	[지표 1-4]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	100.0	0.0	99.5	6.5
2. 소득·자산상태	[지표 2-1]가구균등화소득지표	69.8	30.1	66.3	27.6
	[지표 2-2]가구균등화자산지표	66.6	31.8	52.4	31.7
	[지표 2-3]자산의 유동성	62.7	32.5	59.3	38.2
	[지표 2-4]연금가입 및 수급실태	58.9	12.7	13.6	12.3
3. 건강상태	[지표 3-1]만성질환수	79.0	25.7	87.0	23.4
	[지표 3-2]우울증	71.7	42.1	76.9	39.3
	[지표 3-3]활동제한 정도	92.3	25.4	97.0	16.1
	[지표 3-4]건강행위 실천정도	80.7	26.1	74.5	31.2
4. 사회참여	[지표 4-1]적절한경제활동 참여	50.5	37.3	39.2	33.0
	[지표 4-2]단체활동참여수	35.3	18.2	40.4	21.1
	[지표 4-3]공연문화 향유여부	20.3	28.8	22.3	30.7
	[지표 4-4]여행경험여부	22.2	26.5	25.9	32.4

영역별 및 종합점수의 경우도 집단 크기를 고려한 GLM 분석결과에서 가족·사회관계 영역과 소득·자산상태 영역이 공적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두 영역의 통계적 차이는 가족·사회관계의 경우 개별지표 중 배우자 유무, 소득·자산상태의 경우 연금 가입 및 수급실태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들 영역의 영역별 차이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공적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삶의 질 종합점수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50대의 경우 공적연금 가입 등으로 인한 비수급자가 대부

분으로, 노령연금 등 본격적인 공적연금 수급에 의한 삶의 질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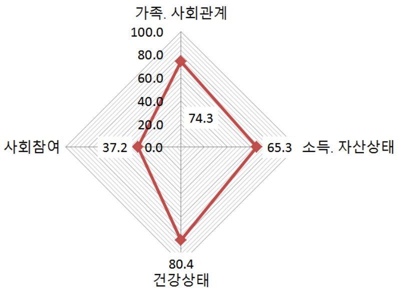
〈표 3-2〉 50대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삶의 질 영역 및 종합점수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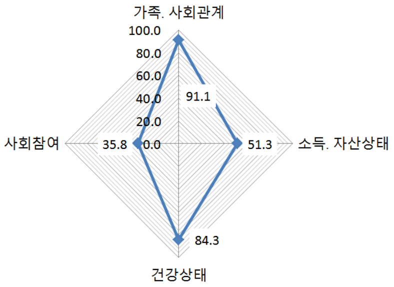
영역	공적연금 수급자 (n=70)		공적연금 비수급자 (n=1,148)		GLM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F	p
1. 가족사회관계	74.3	20.0	91.1	14.5	83.650	.000
2. 소득자산상태	65.3	17.4	51.3	20.1	32.687	.000
3. 건강상태	80.4	17.8	84.3	16.8	3.628	.057
4. 사회참여	37.2	19.3	35.8	15.8	0.540	.463
종합점수	65.1	12.3	65.1	11.4	0.000	.983

[그림 3-1] 50대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삶의 질 영역별 비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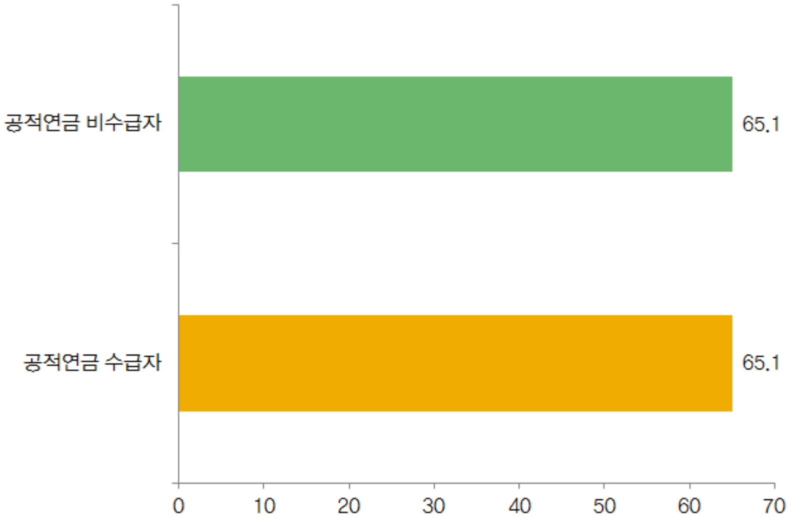
공적연금 수급자



공적연금 비수급자

[그림 3-2] 50대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삶의 질 종합점수 비교

(단위: 점)



다음으로 공적연금 수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60대의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3-3>의 60대의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삶의 질 개별 지표 점수를 살펴보면, 가족·사회관계의 경우 두 집단의 차이는 거의 없다. 소득·자산 상태의 경우, [지표 2-4]의 연금 가입 및 수급실태를 제외하더라도 소득, 자산, 자산의 유동성 측면이 모두 공적연금 수급자의 점수가 높았다. 건강상태 영역의 개별 지표 역시 만성질환수, 우울증, 건강행위 실천정도 모두 공적연금 수급자의 경우가 높았다. 사회참여의 경우도 모든 개별지표의 수준이 공적연금 수급자의 경우 높았다.

〈표 3-3〉 60대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삶의 질 영역별 개별 지표 점수

(단위: 점)

영역	개별지표	수급자 (n=626)		비수급자 (n=1,230)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가족사회 관계	[지표 1-1]배우자유무	81.7	36.2	82.8	35.4
	[지표 1-2]자녀와의 물리적 근접성	55.4	30.3	53.3	29.6
	[지표 1-3]생존 형제자매	98.0	13.3	97.9	13.7
	[지표 1-4]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	99.9	3.6	99.6	6.3
2. 소득·자산 상태	[지표 2-1]가구균등화소득지표	65.0	28.2	50.2	28.2
	[지표 2-2]가구균등화자산지표	68.4	29.3	53.3	30.3
	[지표 2-3]자산의 유동성	65.8	35.4	56.3	37.6
	[지표 2-4]연금가입 및 수급실태	56.9	9.1	17.6	17.2
3. 건강상태	[지표 3-1]만성질환수	70.6	28.8	67.3	31.7
	[지표 3-2]우울증	80.2	37.3	75.0	40.3
	[지표 3-3]활동제한 정도	96.3	18.0	96.5	17.4
	[지표 3-4]건강행위 실천정도	79.7	28.1	73.7	30.1
4. 사회참여	[지표 4-1]적절한경제활동 참여	43.1	34.3	28.0	26.3
	[지표 4-2]단체활동참여수	41.9	21.1	36.2	20.8
	[지표 4-3]공연문화 향유여부	18.1	25.5	13.5	17.2
	[지표 4-4]여행경험여부	25.7	31.2	22.4	29.1

60대의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삶의 질 영역별 및 종합점수 수준을 살펴보자. 공적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삶의 질 수준에 통계적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소득·자산상태, 건강상태, 사회참여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 세 영역 모두 공적연금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영역을 종합한 60대의 삶의 질은 공적연금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60대의 경우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에서는 기초연금 수급도 이루어지나 본 연구에서는 이 연령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기초연금을 수급받는 65세 이상 연령대를 통제한 분석은 4절에서 다룬다) 60대의 소득·자산상태의 차이가 공적연금의 효과만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표 3-4〉만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60대에서 공적연금 수급자가 소득·자산상태를 포함한 건강, 사회참여의 수준이 높고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이 높다는 점은 공적연금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경제적 측면뿐만이 아닌 다방면의 노후준비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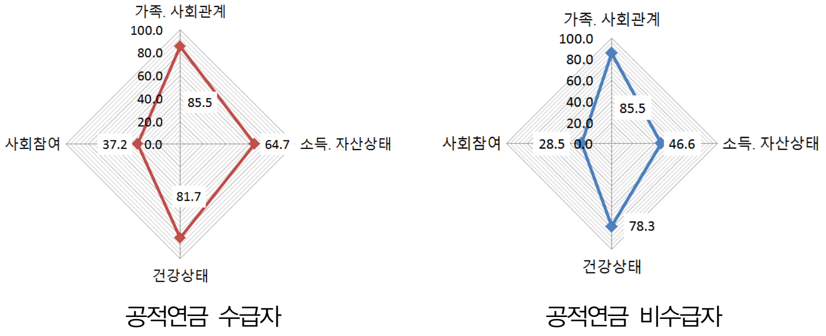
〈표 3-4〉 60대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삶의 질 영역 및 종합점수

(단위: 점)

영역	공적연금 수급자 (n=626)		공적연금 비수급자 (n=1,230)		GLM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F	p
1. 가족·사회관계	85.5	15.9	85.5	15.6	.002	.963
2. 소득·자산상태	64.7	16.9	46.6	18.0	436.805	.000
3. 건강상태	81.7	16.8	78.3	18.0	15.598	.000
4. 사회참여	37.2	16.3	28.5	13.7	145.600	.000
종합점수	67.3	11.0	59.2	11.0	224.521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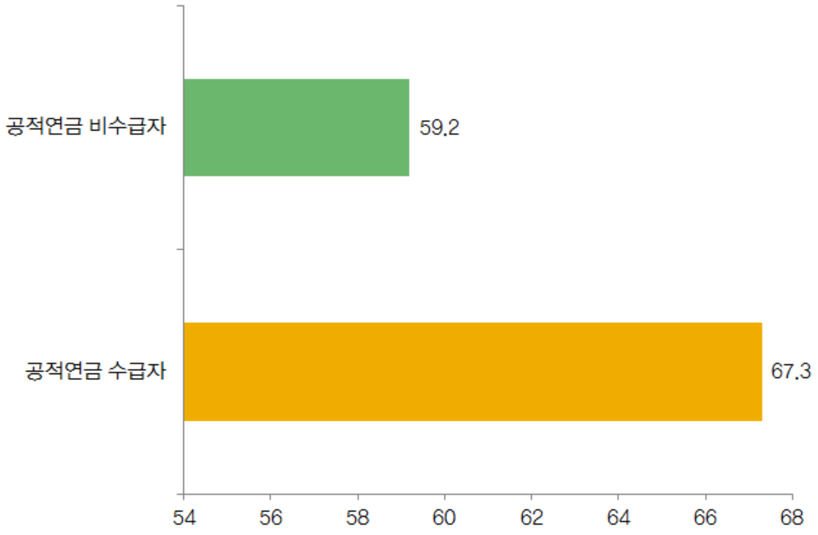
[그림 3-3] 60대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삶의 질 영역별 비교

(단위: 점)



[그림 3-4] 60대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삶의 질 종합점수 비교

(단위: 점)



70대 이상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보자. 〈표 3-5〉를 살펴보면 공적연금 수급자는 가족·사회관계 영역에서의 자녀와의 물리적 접근성을 제외한 모든 개별지표의 수준이 높았으며, 소득·자산상태, 건강상태, 사회참여 영역의 모든 개별지표의 수준이 공적연금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적연금 수급자의 공적연금 수급과 관련된 지표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공적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의 삶의 질 개별지표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70대 이상의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삶의 질 영역별 개별 지표 점수

(단위: 점)

영역	개별지표	수급자 (n=364)		비수급자 (n=2,55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가족·사회관계	[지표 1-1]배우자유무	75.0	40.4	60.0	44.7
	[지표 1-2]자녀와의 물리적 근접성	48.9	27.0	51.1	29.1
	[지표 1-3]생존 형제자매	96.8	16.7	90.5	27.7
	[지표 1-4]친구이웃과의 접촉빈도	99.3	8.1	98.8	10.5
2. 소득·자산상태	[지표 2-1]가구균등화소득지표	57.9	29.6	35.0	27.3
	[지표 2-2]가구균등화자산지표	70.8	30.1	45.0	30.3
	[지표 2-3]자산의 유동성	62.2	35.7	52.6	38.0
	[지표 2-4]연금가입 및 수급실태	55.5	4.7	18.1	17.3
3. 건강상태	[지표 3-1]만성질환수	61.0	32.7	59.5	32.1
	[지표 3-2]우울증	71.8	41.8	65.5	43.8
	[지표 3-3]활동제한 정도	91.6	26.2	90.6	27.6
	[지표 3-4]건강행위 실천정도	76.4	30.1	65.4	34.4
4. 사회참여	[지표 4-1]적절한경제활동 참여	24.8	26.5	18.8	17.5
	[지표 4-2]단체활동참여수	35.6	21.7	28.8	20.3
	[지표 4-3]공연문화 향유여부	17.0	24.1	11.7	12.1
	[지표 4-4]여행경험여부	24.5	30.7	19.1	26.0

70대의 삶의 질 영역 및 종합점수에서도 공적연금 수급자의 영역별 및 삶의 질 종합점수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서 60대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회참여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및 종합점수에서 70대 이상 연령대의 공적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점수 차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 70대 이상의 고령자에게 공적연금의 수급이 노후시기 삶의 질 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70대의 경우 공적연금 수급자는 주로 국민연금 확대적용시기에 가입함에 따라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수급연령이 되었으나 한시적으로 수급자격을 주었던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이거나 또는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할 때 이 연령대의 공적연금 수급자의 경우 공적연금 가입이 가능했던 소득활동을 했거나 특수직역연금 가입이 가능했던 소득의 안정성이 확보된 직종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 연령대의 공적연금 수급여부는 생애 소득활동의 질과도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70대 이상의 공적연금 비수급자의 다수는 공공부조인 기초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보여, 70대 이상 고령자의 생애 공적연금 가입을 통한 개인 차원의 노후준비는 노후시기 삶의 질의 모든 영역과 종합적인 삶의 질 수준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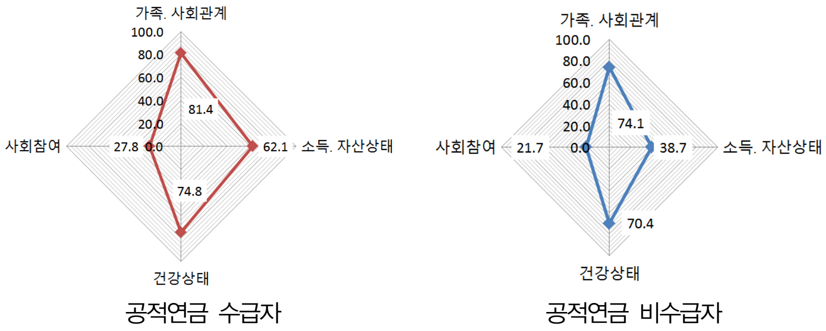
〈표 3-6〉 70대 이상의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삶의 질 영역 및 종합점수

(단위: 점)

영역	공적연금 수급자 (n=364)		공적연금 비수급자 (n=2,558)		GLM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F	p
1. 가족사회관계	81.4	16.9	74.1	20.1	44.284	.000
2. 소득자산상태	62.1	17.0	38.7	17.9	553.851	.000
3. 건강상태	74.8	20.0	70.4	20.6	14.980	.000
4. 사회참여	27.8	14.9	21.7	11.2	86.513	.000
종합점수	61.5	11.6	50.9	11.6	264.499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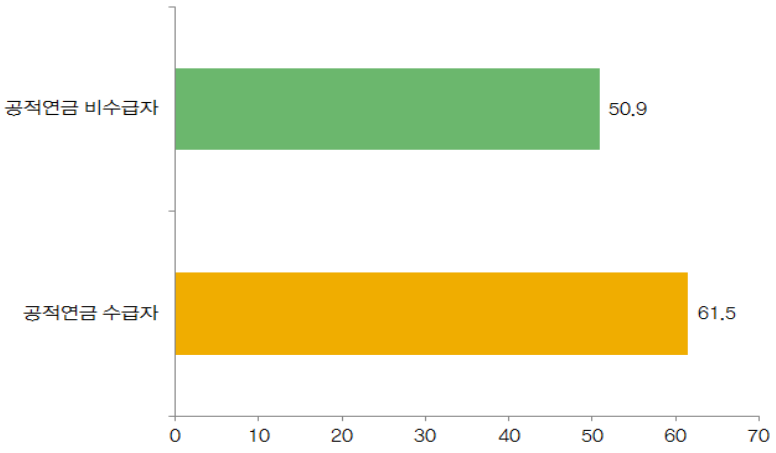
[그림 3-5] 70대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삶의 질 영역별 비교

(단위: 점)



[그림 3-6] 70대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삶의 질 종합점수 비교

(단위: 점)



나. 공적연금 수급자와 사각지대간 삶의 질 비교

공적연금 비수급자 가운데 주로 가입자는 주로 50대로 향후 연금 수급을 받을 것이므로, 비수급자 가운데 현재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는 연금의 가입이나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와 공적연금 수급자간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여기서 현재 가입자를 제외한 연금의 가입과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본 고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라고 명명하였다[10].

즉 공적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또는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수급자이며,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국민연금 또는 특수직역연금의 가입도 수급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사각지대에 포함하였으며, 연령은 통제하지 않았다.

〈표 3-7〉은 공적연금 수급자와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삶의 질 영역별 개별 지표 수준을 나타낸다. 가족·사회관계 영역의 [지표1-2]자녀와의 근접성 지표를 제외한 모든 영역의 개별 지표 수준이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 비해 공적연금 수급자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영역 중 공적연금 수급자와 공적연금 사각지대간 개별 지표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은 소득·자산 상태 영역으로,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표 2-4]의 연금가입 및 수급실태 뿐만 아니라 소득, 자산, 자산의 유동성 측면에서도 공적연금 가입이나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들에 비해 점수 수준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각지대에 공적연금의 가입이나 수급률이 낮을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이나 고령자가 다수 포함되며, 이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적연금 수급자와 사각지대간 경제적 차이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 가족·사회관계 영역, 건강상태 영역, 사회참여 영역의 공적연금 수급자와 공적연금 사각지대간 개별 지표의 수준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10) 공적연금 가입자, 공적연금 수급자, 공적연금 사각지대간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한 자료는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3-7〉 공적연금 수급자와 사각지대간 삶의 질 개별지표 비교

(단위: 점)

영역	지표	공적연금 수급자 (n=1,060)		공적연금 사각지대 (n=4,936)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 가족 ·사회관계	1-1. 배우자유무	77.2	39.2	72.3	41.6
	1-2. 자녀와의 근접성	54.4	30.0	57.0	31.4
	1-3. 생존 형제·자매	97.5	14.7	94.3	21.9
	1-4. 친구·이웃	99.7	5.5	99.1	8.7
2. 소득·자산 상태	2-1. 가구균등화소득	62.9	29.0	46.1	30.4
	2-2. 가구균등화자산	69.1	29.7	48.8	30.9
	2-3. 자산의유동성	64.3	35.3	55.1	38.0
	2-4. 연금가입 및 수급실태	56.6	8.3	17.0	16.4
3. 건강상태	3-1. 만성질환수	67.9	30.4	67.8	32.2
	3-2. 우울증여부	76.7	39.4	70.5	42.2
	3-3. 활동제한	94.4	21.8	93.5	23.2
	3-4. 건강행위 실천	78.6	28.7	69.6	32.9
4. 사회참여	4-1. 적절한 경제활동 참여	37.3	33.3	25.8	25.5
	4-2. 단체활동참여수	39.3	21.4	33.4	21.2
	4-3. 공연문화 향유여부	17.9	25.2	14.6	19.7
	4-4. 여행경험 여부	25.0	30.7	21.5	28.5

삶의 질 하위 영역별 수준을 나타낸 〈표 3-8〉과 [그림 3-7]을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공적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이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점수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삶의 질 하위영역 가운데 소득·자산상태 영역의 두 집단간 점수차가 20.3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참여 영역으로 7.3점의 점수 차이를 보였다. 삶의 질 종합점수 역시 공적연금 수급자가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8〉, [그림 3-8]).

이러한 결과는 공적연금 수급자가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에 비해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과 더불어 하위 영역별 삶의 질 수준도 모두 높아, 공적연금 수급자와 연금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전반적 삶의 질의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노후시기 공적연금을 수급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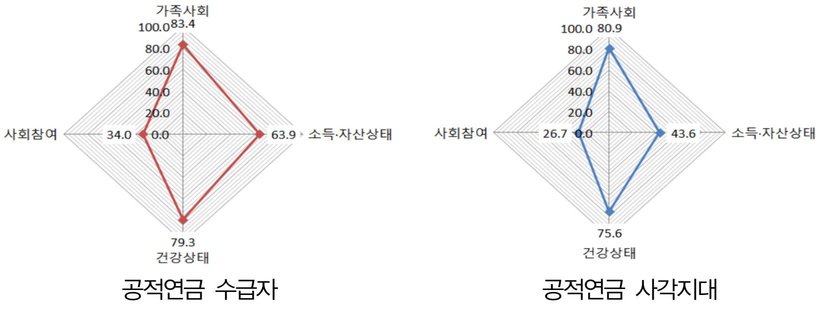
〈표 3-8〉 공적연금 수급여부별 삶의 질 영역 및 종합점수

(단위: 점)

영역	공적연금 수급자		공적연금 사각지대		GLM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F	p
1. 가족사회관계	83.4	16.8	80.9	19.3	14.934	.000
2. 소득자산상태	63.9	17.0	43.6	19.2	1010.519	.000
3. 건강상태	79.3	18.3	75.6	20.0	30.270	.000
4. 사회참여	34.0	16.6	26.7	14.3	214.857	.000
종합점수	65.2	11.6	56.3	12.8	429.781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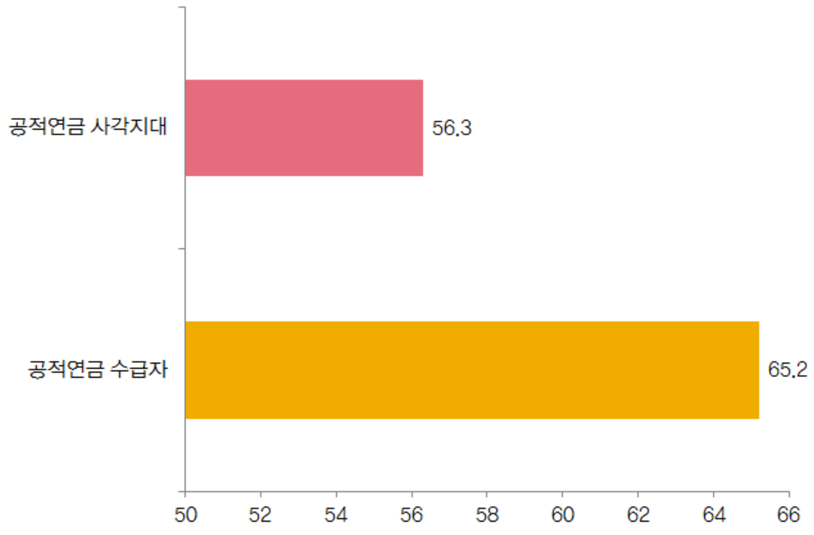
[그림 3-7] 공적연금 수급자와 공적연금 사각지대간 삶의 질 영역별 비교

(단위: 점)



[그림 3-8] 공적연금 수급자와 공적연금 사각지대간 삶의 질 종합점수 비교

(단위: 점)



2.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 비교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등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88.3%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공무원연금 수급자 8.6%, 군인연금 수급자 1.8%, 사학연금 수급자 1.3% 순이다(통계청, 2016).

공적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제도 도입이 늦었고 아직까지 수급액 수준이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보다 낮으므로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노후시기 삶의 질의 수준이 다를 가

능성이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의 수준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제도마다 급여제도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 군인연금의 퇴역연금, 사학연금의 퇴직연금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자 1,464명은 국민연금 수급자 85.2%, 공무원연금 수급자 11.06%, 군인연금 수급자 2.04%, 사학연금 수급자 1.63%로 구성되었다. 특수직역연금의 종류 및 급여종류까지 고려한 삶의 질 비교 결과는 〈부록〉을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특수직역연금 종류 및 급여종류의 구분은 제외한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전체와 국민연금 수급자간 삶의 질 차이를 살펴본다.

〈표 3-9〉는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 영역별 개별 지표 수준의 비교이다. 가족·사회관계 영역의 [지표 1-3]생존 형제·자매, 소득·자산상태 영역의 [지표 2-4]연금가입 및 수급실태, 건강상태 영역의 [지표 3-2]우울증 여부와 [지표 3-3]활동제한, 사회참여 영역의 [지표 4-1]적절한 경제활동 참여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간 점수 차이는 적은 수준이었다. 이 지표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의 경우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점수가 높았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간 점수차가 큰 지표는 소득·자산상태 영역의 소득과 자산 관련 지표였으며, 사회참여 영역에서는 공연문화 향유여부로 나타났다. 소득·자산상태 영역의 소득과 자산의 경우 특

11) 참고로 공적연금 종류별 평균 수급액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2016년 12월 기준, 월 368,210원(국민연금공단, 2016)
-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2015년 12월 기준, 월 2,419,000원(공무원연금공단, 2015)
- 군인연금 퇴역연금: 2016년 12월 기준, 월 약 2,283,000원(군인연금공단, 2016)
- 사학연금 퇴직연금: 2016년 12월 기준, 남성 2,863,262원, 여성 2,583,892원(사학연금, 2016)

수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 공무원, 교사, 군인 등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연금을 포함한 노후자산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득, 자산뿐만 아니라 [지표 2-3]의 자산의 유동성 수준도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더 높은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점수 차이가 컸던 [지표 4-3]의 공연문화 향유여부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아 연금으로 노후소득이 충당되므로 노후시기에 공연문화 등의 여가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표 3-9〉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 개별 지표 비교

(단위: 점)

영역	지표	국민연금 수급자 (n=1,248)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n=216)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가족·사회 관계	1-1. 배우자유무	81.2	36.6	90.8	27.4
	1-2. 자녀와의 근접성	50.8	28.3	50.4	27.9
	1-3. 생존 형제·자매	96.8	16.8	95.2	20.3
	1-4. 친구·이웃	99.4	7.2	99.6	6.3
2. 소득·자산 상태	2-1. 가구균등화소득	51.1	30.1	76.1	22.9
	2-2. 가구균등화자산	58.6	30.7	72.3	26.7
	2-3. 자산의유동성	60.4	36.6	70.6	33.1
	2-4. 연금가입 및 수급실태	56.0	6.9	55.4	4.4
3. 건강상태	3-1. 만성질환수	66.4	30.6	69.9	30.8
	3-2. 우울증여부	76.3	39.7	74.5	40.6
	3-3. 활동제한	95.4	19.9	92.5	24.9
	3-4. 건강행위 실천	74.7	30.2	84.0	26.9

영역	지표	국민연금 수급자 (n=1,248)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n=216)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4. 사회참여	4-1. 적절한 경제활동 참여	35.8	30.6	23.6	29.8
	4-2. 단체활동참여수	36.4	20.9	43.4	23.4
	4-3. 공연문화 향유여부	14.4	19.3	23.6	32.3
	4-4. 여행경험 여부	23.1	29.2	26.5	33.3

〈표 3-10〉과 [그림 3-9]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영역별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보자.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하위 영역은 소득·자산상태 영역과 가족·사회관계 영역이었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소득·자산상태 영역은 13.9점, 가족·사회관계 영역은 3.5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과 [그림 3-10]에서 삶의 질 종합점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삶의 질 종합점수 역시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해 삶의 질 종합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높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대다수의 국민연금 수급자 간에 노후시기 객관적 삶의 질 수준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제도의 도입 시기의 차이뿐만 아니라 연금 급여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노후소득보장수준의 차이가 노후시기 삶의 질의 격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 비교적 소득 및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된 직종(공무원, 교사, 군인 등)을 통한 노후준비가 이루어졌으며 단순히 경제적 뿐만 아닌 다차원의 노후준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국민연금제도

가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다차원, 그리고 삶의 질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노후준비 수단으로 자리잡도록 제도의 성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적연금제도간 수급자의 삶의 질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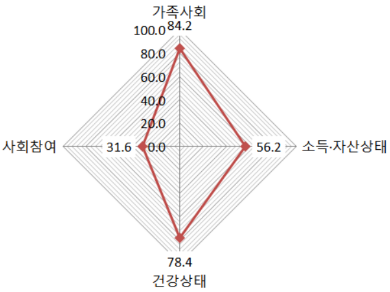
〈표 3-10〉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 영역 및 종합점수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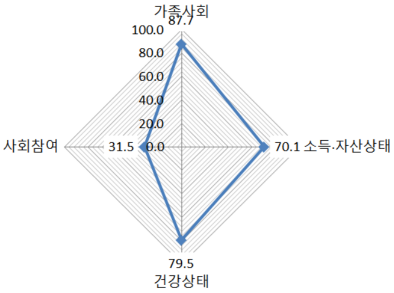
영역	국민연금 수급자 (n=1,248)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n=216)		GLM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F	p
1. 가족·사회관계	84.2	16.6	87.7	13.5	7.701	.006
2. 소득·자산상태	56.2	18.3	70.1	13.9	108.983	.000
3. 건강상태	78.4	18.1	79.5	19.5	.681	.409
4. 사회참여	31.6	15.6	31.5	16.6	.016	.899
종합점수	62.4	12.1	67.1	10.1	28.270	.000

[그림 3-9]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 영역별 비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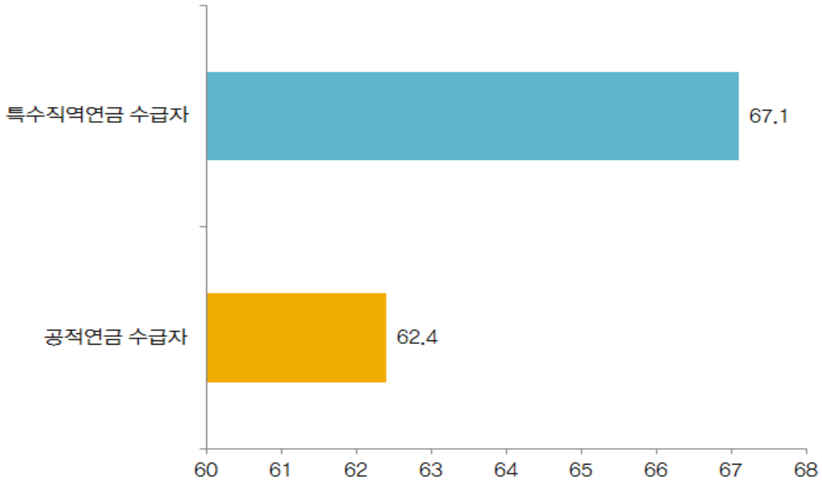
국민연금 수급자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그림 3-10]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 종합 점수 비교

(단위: 점)



3.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별 삶의 질 비교

공적연금 수급자의 다수는 국민연금 수급자로, 국민연금 수급은 10년 가입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2016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의 43.8%는 국민연금제도 도입(1988년도) 당시 및 제도 확대 적용(1995년 농어촌, 1999년 도시지역) 당시 연령이 많아 만 60세까지 계속하여 가입하더라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없는 사람에게 5년 이상만 가입하여도 연금혜택을 기회를 부여한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이다. 그리고 수급자의 33.3%는 10~20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갖는 수급자로, 매월 10~20만원 사이의 연금 급여를 받는 사람이 27.3%, 20~30만원 사이의 연금 급여를 받는 사람이 27.7%로 과반에 이른다. 즉 아직까지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과거에 비해 평균 급여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수급자 간에도 급여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국민연금 수

급자의 급여수준별로 경제적 상태를 포함한 삶의 질의 하위영역과 전반적인 삶의 질 상태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급여 종류와 관련하여 2016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급여종류에서 노령연금이 82.3%, 유족연금 10.9%(국민연금공단, 2016) 등을 차지하며, 2016년 12월 말 기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평균 급여액이 각각 368,210원과 263,100원(국민연금공단, 2017)으로 급여수준의 차이를 보임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와 유족연금 수급자를 분리하여 각각의 급여수준별로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노령연금 수급자와 유족연금 수급자의 연금급여수준별 삶의 질 개별지표, 영역별, 종합점수의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급여수준별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급여를 토대로 한 4분위와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의 4분위로 집단을 구성하였다. 1분위가 급여수준이 가장 낮으며, 4분위의 급여수준이 가장 높은 것을 의미한다. 급여수준을 토대로 4분위로 구성한 이유는 연금급여 수준의 고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함으로, 분석대상의 급여수준이 절대적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 4분위별 삶의 질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유족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 4분위별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노령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별 삶의 질 비교

분석대상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별 집단구성을 연금급여를 4분위로 나눈 결과, 각 분위의 기준점이 15만원, 23만원, 35.7만원이었다. 이 수치는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급여수준 응답값을 토대로 한 것으로 절대적인 의미를 갖지 않으며, 노령연금 수준의 고저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편의상 집단을 구분한 것임을 참고하기 바란

다.

〈표 3-11〉에서 노령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별 삶의 질 영역의 개별 지표 수준을 살펴보면, 연금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대부분의 개별 지표의 점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자산상태 영역의 [지표 2-1]가구균등화소득과 [지표 2-2]가구균등화자산의 경우 연금급여수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건강상태 영역에서 [지표 3-2]우울증 여부의 경우도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수준별 삶의 질 개별 지표 점수

(단위: 점)

영역	지표	1분위 (n=350)		2분위 (n=295)		3분위 (n=291)		4분위 (n=31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가족·사회관계	1-1. 배우자유무	67.3	43.3	83.2	35.1	86.1	32.6	90.5	27.7
	1-2. 자녀와의 근접성	49.2	27.7	48.4	26.5	53.4	29.9	52.4	29.0
	1-3. 생존 형제·자매	94.6	21.4	96.9	16.3	97.5	14.7	98.3	12.4
	1-4. 친구·이웃	99.5	6.8	99.1	9.0	99.7	5.3	99.4	7.2
2. 소득·자산상태	2-1. 가구균등화소득	41.2	29.6	45.0	26.5	57.2	30.3	62.4	28.6
	2-2. 가구균등화자산	48.2	30.0	57.2	29.3	63.1	30.2	67.4	29.6
	2-3. 자산의유동성	55.0	37.2	55.8	37.0	61.2	35.9	70.3	34.4
	2-4. 연금가입 및 수급실태	55.3	3.4	55.0	3.7	55.6	5.2	58.2	11.5
3. 건강상태	3-1. 만성질환수	63.7	32.0	66.8	29.9	65.3	30.9	70.0	29.3
	3-2. 우울증여부	69.1	42.8	76.5	39.6	78.4	38.5	82.1	36.0
	3-3. 활동제한	93.3	23.6	95.1	20.4	96.3	17.9	97.1	15.9
	3-4. 건강행위 실천	69.3	32.8	72.5	30.4	79.3	26.7	78.7	29.1
4. 사회참여	4-1. 적절한 경제활동 참여	28.7	25.6	30.7	25.1	41.8	32.9	42.9	35.3
	4-2. 단체활동참여수	33.9	20.7	34.3	21.2	38.9	20.6	39.0	20.7
	4-3. 공연문화 향유여부	12.3	13.9	14.1	18.7	13.7	17.5	17.8	25.3
	4-4. 여행경험 여부	23.0	29.5	21.9	28.2	23.1	29.0	24.3	30.1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별 삶의 질의 영역별 점수를 나타낸 〈표 3-12〉와 [그림 3-11]을 살펴보면,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가족·사회관계영역, 소득·자산상태영역, 건강상태영역, 사회참여영역 모두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영역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사회관계영역과 건강상태의 경우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영역별 점수가 높으나, 3분위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득·자산상태영역의 경우 모든 분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 영역의 경우 1~2분위와 3~4분위의 점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와 [그림 3-12]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수준이 높은 집단의 삶의 질 종합점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할 때,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시기 다차원적 삶의 질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삶의 질 수준이 높아, 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급여수준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소득 증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노후시기 전반적인 삶의 질적 향상과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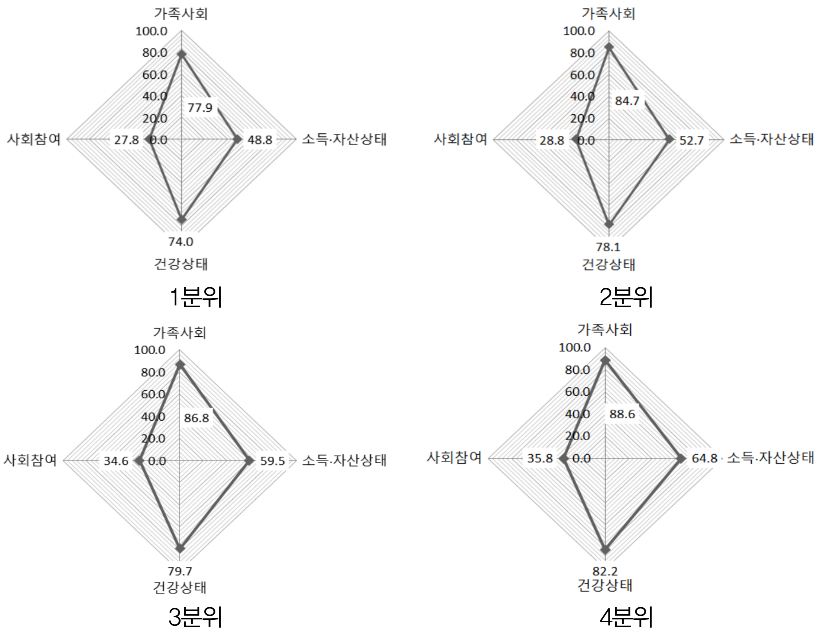
〈표 3-12〉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수준별 삶의 질 영역 및 종합 점수

(단위: 점)

영역	1분위 (n=350)		2분위 (n=295)		3분위 (n=291)		4분위 (n=312)		GLM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F	p
1. 가족·사회관계	77.9	19.3	84.7	15.4	86.8	15.4	88.6	12.9	28.507	.000
2. 소득·자산상태	48.8	17.5	52.7	16.0	59.5	17.8	64.8	17.2	55.672	.000
3. 건강상태	74.0	18.9	78.1	18.6	79.7	17.6	82.2	16.3	12.511	.000
4. 사회참여	27.8	14.5	28.8	13.7	34.6	15.6	35.8	17.0	22.335	.000
종합점수	56.9	12.0	60.7	10.5	64.9	11.6	67.7	11.2	56.018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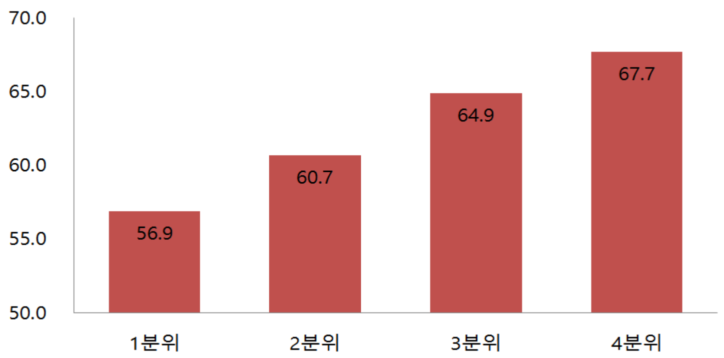
[그림 3-11]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별 삶의 질 영역별 점수

(단위: 점)



[그림 3-12]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별 삶의 질 종합점수 비교

(단위: 점)



나. 유족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별 삶의 질 비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다음으로 수급자 비중이 높은 유족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별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유족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을 4분위로 나눈 결과 각 분위의 기준점이 13만원, 19.4만원, 26만원으로, 이는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급여수준 응답값을 토대로 한 것으로 절대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

〈표 3-13〉에서 삶의 질 영역별 개별 지표 수준을 살펴보면, 유족연금 급여수준에 따라 삶의 질 개별 지표의 점수차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즉 유족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별로 삶의 질 영역별 개별 지표 점수의 수준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유족연금 급여수준별 삶의 질 영역 및 종합점수 비교결과인 〈표 3-14〉와 [그림 3-13], [그림 3-14]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유족연금 급여수준별로 삶의 질의 하위 영역의 집단간 차이 및 종합점수의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유족연금 급여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결과는 유족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이 여성[12])으로, 집단간 이질성이 적은 편인 점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이 낮은 편인데, 급여수준의 분위간 급여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삶의 질 개별 지표 및 영역별 지표, 그리고 삶의 질의 종합점수에 차이를 가져올 정도로 급여수준 분위간 특성이 이질적이지 못함을 나타낸다. 또한 유족연금이 아직까지는 유족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준에 미치지는 못한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2) 본 연구에서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163명) 중 95.7%(156명)이 여성임

〈표 3-13〉 국민연금 유족연금 급여수준별 삶의 질 개별 지표 점수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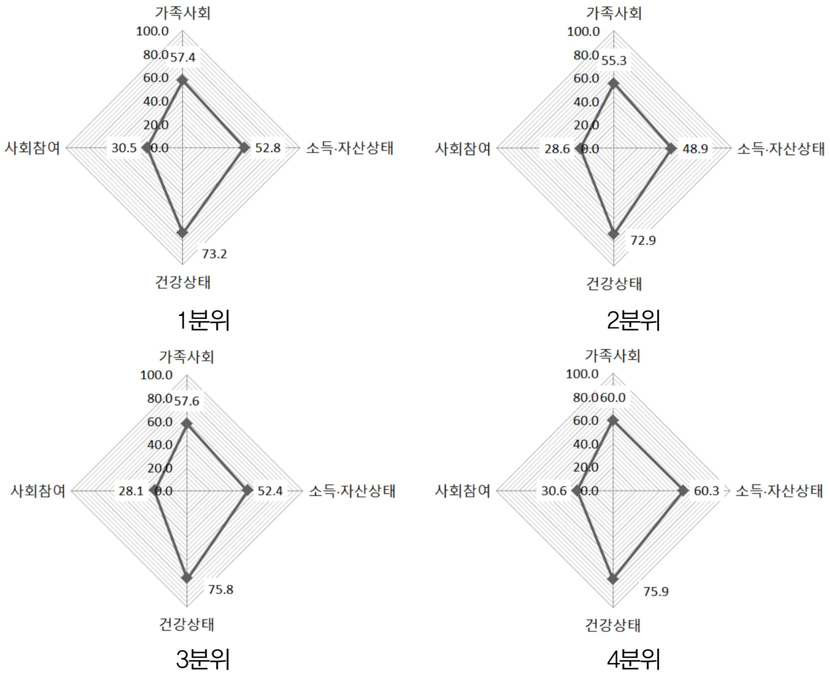
영역	지표	1분위 (n=45)		2분위 (n=37)		3분위 (n=42)		4분위 (n=39)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가족·사회관계	1-1. 배우자유무	12.0	13.4	12.4	14.8	12.1	13.9	14.6	20.1
	1-2. 자녀와의 근접성	62.4	32.5	49.1	27.1	67.5	32.9	66.7	32.9
	1-3. 생존 형제·자매	94.0	22.7	92.7	24.9	91.4	26.7	97.7	14.4
	1-4. 친구·이웃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0.0
2. 소득·자산상태	2-1. 가구균등화소득	42.5	29.0	39.2	24.8	48.0	31.6	57.9	31.0
	2-2. 가구균등화자산	52.5	33.0	46.5	29.2	53.9	30.6	68.3	32.5
	2-3. 자산의유동성	65.0	34.4	61.1	38.5	52.9	39.7	55.0	35.8
	2-4. 연금가입 및 수급실태	56.0	6.7	55.0	0.0	57.1	9.7	58.5	12.1
3. 건강상태	3-1. 만성질환수	65.3	31.3	61.1	36.0	62.1	34.5	67.7	31.8
	3-2. 우울증여부	66.0	44.1	68.4	43.6	72.1	42.1	70.0	43.0
	3-3. 활동제한	94.0	22.7	92.7	24.9	95.7	19.4	93.1	24.3
	3-4. 건강행위 실천	67.0	35.1	69.6	33.6	73.2	28.2	73.5	32.2
4. 사회참여	4-1. 적절한 경제활동 참여	30.0	25.9	30.7	23.3	26.1	24.0	37.7	35.9
	4-2. 단체활동참여수	34.0	21.8	35.1	24.0	36.4	17.8	33.1	20.0
	4-3. 공연문화 향유여부	18.0	25.9	12.4	14.8	16.4	23.5	14.6	20.1
	4-4. 여행경험 여부	35.0	36.6	19.7	26.3	20.7	27.8	19.2	23.5

〈표 3-14〉 국민연금 유족연금 급여수준별 삶의 질 영역 및 종합 점수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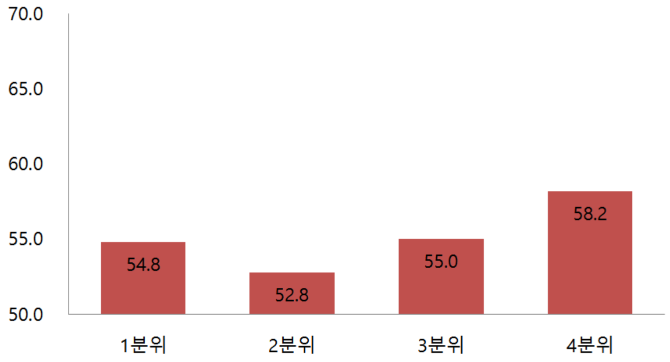
영역	1분위 (n=45)		2분위 (n=37)		3분위 (n=42)		4분위 (n=39)		GLM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F	p
1. 가족사회관계	57.4	9.8	55.3	9.1	57.6	9.6	60.0	10.8	1.441	.233
2. 소득자산상태	52.8	18.3	48.9	14.2	52.4	20.8	60.3	18.7	2.668	.050
3. 건강상태	73.2	18.4	72.9	22.2	75.8	18.7	75.9	18.2	.275	.843
4. 사회참여	30.5	17.3	28.6	16.0	28.1	12.8	30.6	16.5	.285	.836
종합점수	54.8	11.4	52.8	11.2	55.0	10.6	58.2	11.5	1.516	.212

[그림 3-13]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별 삶의 질 영역별 점수



[그림 3-14]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 종합점수

(단위: 점)



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급자의 삶의 질 비교

우리나라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제도가 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적부조로, 국민연금으로부터 수급권이 없는 노인이나 수급권이 있더라도 수급액이 적은 계층 등의 노후보장을 위한 무기여 복지연금 성격의 기초적 보장제도이다.

2016년 말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458만 1천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약 65.6%이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33.6%를 차지하고 있다[13](2017, 국민연금공단).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공적연금과 더불어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삶의 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수급자와 기초·국민연금 동시수급자의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수급자는 공적연금의 수급 없이 기초연금만 수급받고 있는 경우이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14].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동시수급자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유족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 수준 비교 자료는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먼저 〈표 3-15〉에서 기초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의 삶의 질 영역별 개별 지표 점수를 살펴보면, 가족·사회관계 영역의 [지표 1-2]자녀와의 근접성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개별 지표와 소득·자산상태 영역, 건강상태 영역, 사회참여 영역의 개별 지표의 수준이 기초연금 · 국민연금 동시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에 비해 높았다.

13)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일부 특례가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집단간 소득·자산상태 영역의 [지표 2-4]연금 가입 및 수급실태의 점수차가 컸는데, 이는 동시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이 이루어지나, 기초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 수급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건강상태 영역의 개별 지표들도 모두 동시 수급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동시수급자의 건강관리 수준이 기초연금만 수급 받는 사람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회참여 영역의 경우 [지표 4-3] 공연문화 향유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에서 동시수급자의 개별 지표 수준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에 비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수급자의 여가활동 수준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15〉 기초연금 수급자와 동시수급자의 삶의 질 개별 지표 점수

(단위: 점)

영역	지표	기초연금 수급자 (n=2,041)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n=561)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가족·사회관계	1-1. 배우자유무	58.9	44.8	74.3	40.7
	1-2. 자녀와의 근접성	52.1	29.6	47.9	26.7
	1-3. 생존 형제·자매	90.4	27.7	95.3	19.9
	1-4. 친구·이웃	98.8	10.3	99.2	8.5
2. 소득·자산 상태	2-1. 가구균등화소득	33.3	26.5	39.8	26.6
	2-2. 가구균등화자산	41.0	28.0	45.7	26.6
	2-3. 자산의유동성	50.5	38.3	56.5	37.7
	2-4. 연금가입 및 수급실태	10.1	1.7	55.2	3.8
3. 건강상태	3-1. 만성질환수	59.8	32.2	63.9	31.4
	3-2. 우울증여부	64.5	44.0	71.6	41.9
	3-3. 활동제한	90.7	27.5	94.9	20.9
	3-4. 건강행위 실천	64.5	34.9	70.4	31.7
4. 사회참여	4-1. 적절한 경제활동 참여	18.6	16.9	27.1	23.3
	4-2. 단체활동참여수	28.7	20.2	33.5	20.9
	4-3. 공연문화 향유여부	11.5	11.4	11.8	12.5
	4-4. 여행경험 여부	18.2	24.8	20.8	27.6

기초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수급자간 삶의 질 하위 영역별 수준을 살펴보면(〈표 3-16〉, [그림 3-15]),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가족·사회관계 영역, 소득·자산상태 영역, 건강상태 영역, 사회참여 영역 점수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영역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수급자의 점수가 기초연금 수급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간 점수 차이가 가장 큰 영역은 소득·자산상태 영역으로 12.8점이었다.

삶의 질 종합점수 역시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표 3-15〉, [그림 3-16]),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수급자의 삶의 질 종합수준이 기초연금 수급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노인에 비해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수급자의 객관적 삶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소득·자산상태 영역과 같은 경제적 측면의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동시수급자의 경우, 이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경우는 제도 도입 및 확대 적용기에 가입함에 따라 충분한 연금 가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특례노령연금의 수급으로 수급액 수준이 낮을 개연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대다수의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경우 연금 수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해 삶의 질 수준이 낮아, 이들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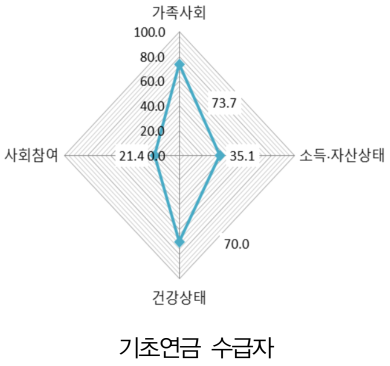
〈표 3-16〉 기초연금 수급자와 동시수급자 삶의 질 영역 및 종합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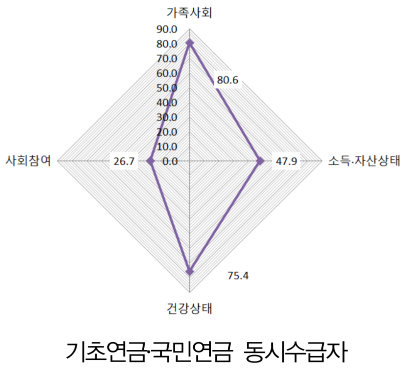
(단위: 점)

영역	기초연금 수급자 (n=2,041)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n=561)		GLM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F	p
1. 가족·사회관계	73.7	20.1	80.6	18.2	53.913	.000
2. 소득·자산상태	35.1	16.6	47.9	16.1	268.408	.000
3. 건강상태	70.0	20.5	75.4	19.2	31.839	.000
4. 사회참여	21.4	11.0	26.7	11.1	94.845	.000
종합점수	49.7	11.2	57.4	11.1	210.209	.000

[그림 3-15] 기초연금 수급자와 동시수급자 삶의 질 영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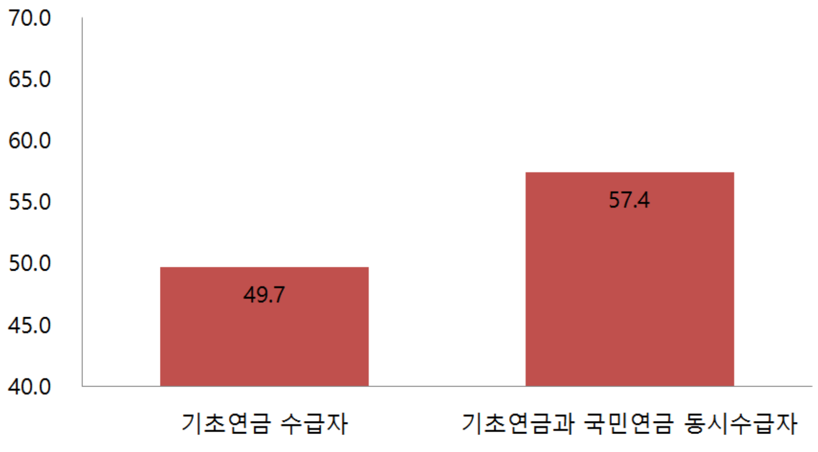
(단위: 점)





[그림 3-16] 기초연금 수급자와 동시수급자의 삶의 질 종합점수

(단위: 점)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고령화시대의 정책방향이 기존의 노후소득보장정책에서 다차원적 노후준비를 통한 삶의 질 하락의 예방으로 변화하는 최근의 상황에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오늘날의 중고령자들의 삶의 질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살펴본 연구이다. 특히 공적연금제도의 도입시기가 연금제도별로 다르고,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1999년 전 국민으로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공적연금을 수급받는 노인이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 실태를 고려하여 공적연금 수급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다차원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중고령자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별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6차 본조사와 6차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정경희 외(2013)가 개발한 중·노년층의 삶의 질 지표체계 연구를 적용하여 삶의 질을 구성하는 표준화된 개별 지표, 영역별 지표, 종합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중고령자의 삶의 질 하위 영역은 객관적 수준과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하위 영역의 수준은 가족·사회관계,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참여 순으로 나타났으나,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서 갖는 중요도는 건강상태, 소득·자산상태, 사회참여, 가족·사회관계 순이었다. 삶의 질의 종합점수 분포는 정규분포 형태를 이루는 가운데, 여성과 고령자의 경우는

삶의 질 종합점수가 낮은 분포를 띄었다.

공적연금 수급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공적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삶의 질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는데, 연령대별 수급여부에 따른 비교, 공적연금 수급자와 공적연금의 가입도 수급도 이루어지지 않는 공적연금 사각지대간 삶의 질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별,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별, 기초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수급자간 삶의 질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공적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연령대별 삶의 질 비교에서는 50대의 경우 주로 공적연금 가입자로, 연금 수급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60대의 경우 가족·사회관계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개별지표 및 영역별, 종합 점수 수준이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높았으며, 70대의 경우 사회참여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과 종합점수에서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공적연금 수급자와 공적연금 사각지대간 삶의 질 비교에서는 공적연금 수급자가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비해 개별 지표를 포함한 모든 하위영역과 종합점수 수준이 모두 높았다. 특히 소득·자산상태 영역과 사회참여 영역의 점수차가 크게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간 삶의 질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해 소득·자산상태 영역과 가족·사회관계 영역의 점수가 높았으며, 삶의 질 종합점수도 높았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별 삶의 질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개별 지표를 포함한 삶의 질 모든 하위영역과 종합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는 개별 지표, 삶의 질 하위 영역, 종합점수가 급여 수준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별 삶의 질 수준별 차이를 나타내기에는 급여수준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의 삶의 질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동시 수급자의 삶의 질 모든 하위 영역과 종합점수가 기초연금 수급자에 비해 높았으며, 하위영역 중 소득·자산상태 영역의 점수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사점

본 연구에서 중고령자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별 객관적 수준과 삶의 질에서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중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자산상태 영역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경제적 영역의 객관적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중요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연금 수급특성 등에 따른 집단 간 수준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소득·자산상태 영역을 시작으로 중요도 순에 따른 영역별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득·자산상태 영역]

첫째,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 공적연금 수급자와 공적연금 사각지대 간 삶의 질을 비교한 결과, 종합점수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권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장가입자 범위 확대, 영세사업장 보험료 지원 사업 등의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있어 왔고 이로 인해 사각지대가 축소되기는 했으나, 소득파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각지대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투명한 소득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연금 수급권을 갖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동안 여성들은 경제활동 비율이 낮아 연금 가입 및 수급율이 저조했다. 그러나 공적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한 그동안 각종 크레딧 제도 도입,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의 무소득배우자로서 적용제외 되었던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 허용 등이 이루어졌다. 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연금 수급률이 낮은 여성의 경우 임의가입을 통한 자발적 가입과 추납을 통한 가입기간 확보를 통한 연금 수급권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제도의 도입 시기 및 제도 자체의 차이가 존재하나, 공적연금 간 급여수준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공무원, 군인, 교사 등의 안정적인 특정 직종에 제한되어 있어 가입기간이 길고 보험료가 높아 급여수준이 높다. 상대적으로 도입시기가 늦고 보험료 수준이 낮은 국민연금과의 급여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 추후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여 급여수준이 향상되면 급여차이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특수직역연금의 높은 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 노후시기 연금제도의 수급자 간 삶의 질 격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제도 간 노후소득보장 수준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노후소득확보를 위해 급여수준을 늘릴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다. 그러나 최소 가입기간을 채웠더라도 장기가입을 통해 수급시 받을 급여수준을 늘릴 수 있다. 또한 수급연령에 도달하였더라도 연금 수급을 연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연기연금의 취지는 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수급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연기되는 기간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으나, 2012년 7월부터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연기되는 1월마다 0.6%씩 가산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 수급의 연기를 통해 급여수준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9월부터 조기연금 수급자의 경우도 연금 수급을 중단하고 재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조기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만 55세 이상인 가입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을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출생년도에 따라 수급 연령이 달라진다. 그러나 연금을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6%씩 급여가 차감되며 최대 5년 일찍 수령할 수 있는데, 5년 일찍 수령할 경우 총 30%가 차감된다. 조기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 소득 평균을 넘으면 조기연금 수급이 중지되었으나, 2017년 9월 22일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조기연금 수급을 중지하고 재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연금 수령을 조기에 신청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었다면 연금 가입을 중지하고 재가입하여 급여수준을 조금이라도 올릴 필요가 있다.

넷째, 공적연금 없이 기초연금만 수급 받는 경우 삶의 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초연금 급여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65.6%가 기초연금을 수급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는 전체 노인인구의 22.1%(국민연금공단, 2017)이다. 본 연구에서 이 두 집단 간 삶의 질 차이가 존재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급자에 비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이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노인의 다수가 기초연금만 수급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의 상향에 대한 검토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재정과 관련되는 부분이므로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영역]

첫째, 중고령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

건강이 중고령자의 종합적 삶의 질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가장 높고, 객관적 수준 역시 높은 편이나, 노후시기 건강의 악화는 삶의 질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공적연금을 수급받거나 급여수준이 높은 경우 건강행위 실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금 수급이 건강관리 등 의료비 등으로 지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나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의료비 부담이 높을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에 대한 의료비 경감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소득수준이 열악한 고령자들의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건강상태 영역의 개별 지표 중 우울은 공적연금 특성별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열악한 노후소득 수준이 우울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노인 빈곤율과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고령자의 소득수준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생활고로 인한 노인자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책당국의 빈곤노인들의 모니터링 및 정신건강을 위한 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회참여영역]

첫째, 노인일자리 확충을 통한 적절한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사회참여의 객관적 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삶의 질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고려할 때 균형 잡힌 노후 삶의 질 도모와 종합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참여의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영역의 상대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사회참여 수준의 향상이 삶의 질 종합적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참여 영역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확충 등 중고령자가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해서는 소득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참여는 적절한 경제활동 참여 이외에도 단체활동, 공연향유, 여행 등의 여가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가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연금 수급자들은 여가나 문화에 대한 상담 니즈(needs)가 높았으며, 사회봉사활동 참여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특정 급여수준 이상인 경우 사회참여 점수가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증가한다면 사회참여 수준과 삶의 질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가족·사회관계영역]

첫째, 배우자와의 관계 해체에 적응하는 데 노후설계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부부 관계는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역할과 관계가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고령자들은 자녀를 독립시키고 부부만 남게 되면서 관계가 긴밀해진다. 이후 노년기에는 배우자의 퇴직, 질병 등으로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고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관계가 해체됨에 따라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 급여수준별로 삶의 질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배우자 사별에 대한 대처는 경제적 접근보다는 어떻게 혼자 노후를 보내는 것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담과 적응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에게는 상담과 대인관계 설계와 같은 노후준비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족 등 대인관계의 갈등관리가 필요하다.

대인관계는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의해 형성되는 1차적 대인관계와 직업적 이해관계, 취미나 종교 등의 공유에 의해 형성되는 2차적 대인관계로 구성된다. 2차적 대인관계는 자유롭고 일시적일 수 있으나, 1차적 대인관계는 선택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부여되는 대인관계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므로 1차적 대인관계의 관계유지가 중요하다.

특히 노후시기에는 자녀를 결혼 등으로 독립시키고 손자녀라는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기도 하며, 부모는 자녀의 보호자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위치로 역할과 관계가 변화한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를 겪으면서 갈등이 초래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3. 연구의 한계점

본 절에서는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공적연금 종류와 급여종류, 급여수준별 삶의 질의 비교를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공적연금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표본이 적어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향후 공적연금의 다양한 특성별 삶의 질 비교를 할 수 있는 표본이 확보된다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삶의 질 측정과 관련하여 기존에 개발된 측정지표와 산출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에 개인단위 비교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항목 무응답 등으로 인한 한계로 가구단위 소득과 자산이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개인별 소득이나 자산 자료가 확보되었다면 보다 정교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조사대상인 50세 이상을 토대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공적연금 수급연령이 보편적으로 60세 이상이나, 조기수급자 및 유족연금 수급자도 고려하여 50대부터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50대의 경우 삶의 질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집단으로, 고령자에 비해 이질성이 있을 수 있으나, 다수는 공적연금 수급자 분석에서는 제외되었을 것으로 그들의 이질성이 분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공적연금 수급자를 노인, 초고령자 등으로 연령을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비교하거나, 부부의 공적연금 수급유형별 삶의 질 차이 등이 분석된다면 보다 흥미로운 시사점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 특성에 따른 노후 삶의 질 수준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 제시를 목적으로 하므로 구체적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을 밝힌다.

참 고 문 헌

공무원연금공단(2015). 공무원연금 통계연보.

국민연금공단(2017). 국민연금공단 30주년에 임의가입자도 30만명 돌파, 2017년 1월 25일자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2017). 2016 국민연금 생생통계 Facts Book.

국민연금공단(2016). 국민연금 통계연보(2016년 제29호).

김승권 · 장영식 · 조흥식 · 차명숙(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13.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 KISTEP · KAIST · 대표저자 정재승(2016). 10년후 대한민국 이제는 삶의 질이다(미래전략보고서), 도서출판 지식공감.

보건복지부(2016). 100세 시대,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지원 본격 실시, 2016.12.29.보도자료.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2017).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과정.

사학연금공단(2016). 사학연금 통계연보.

송현주 · 임란 · 왕승현 · 이은영(2017). 중 · 고령자의 비재무적 노후준비 실태: 건강, 여가, 대인관계를 중심으로-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제6차(2016년도) 부가조사 기초분석보고서-, 국민연금공단 조사보고서.

오영희 · 석재은 · 권중돈 · 김정석 · 박영란 · 임정기(2005).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여성, 농어촌, 독거노인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15.

이희길 · 심수진(2009). 삶의 질과 사회지표 체계 연구. 통계개발원.

장근영 외(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Ⅰ: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3-R11.

장영식 · 고경환 · 손창균 · 이수현(2007).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16.

정경희 · 염주희 · 황남희 · 김정석 · 이금룡 · 오신휘(2013).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31-14.

정경희 · 오영희 · 이윤경 · 박보미(2012).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근태(2003). (앞선다는 리더들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서울: 동현출판사.

하정화 · 김정란 · 이혜주(2011). 부산 아동청소년 행복지표 개발 연구Ⅱ. 부산여성가족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농림수산식품부 용역보고서.

한준 외(2011).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한국사회학회 용역보고서.

통계청(2017). e-나라지표(공적연금 수급률), 2017년 7월 24일 인출.

통계청(2016). 2016 고령자 통계, 2016년 9.29일 보도자료.

Cobb. C., W. (2000). Measurement Tools and the Quality of Life. Redefining Progress.(http://rprogress.org/publications/2000/measure_qol.pdf#search=“measurementtool”)

OECD(2011).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Korea Policy Centre(2014). How’s Life? 2013: OECD 국가들의 웰빙 성과.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http://qol.kostat.go.kr

OECD. Better Life Index. http://oecdbetterlifeindex.org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ttp://her.undp.org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www.who.int

연합뉴스. 2017.8.16. “복지부, 내년에 자살예방과 신설.. ” 자살 · 고독사 담당 “.

부 록

〈부록 1〉 공적연금 가입자, 수급자, 사각지대의 삶의 질 영역별 비교

(단위: 점)

영역	지표	공적연금 가입자 (n=1,558)	공적연금 수급자 (n=1,060)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n=2,752)	사각지대 (공적연금 비가입, 비수급, 공적부조 비수급)		
					전체 (n=2,184)	60세 이하 (n=1,231)	60세 초과 (n=953)
1. 가족·사회관계	1-1. 배우자유무	90.4	77.2	60.9	86.6	88.4	84.2
	1-2. 자녀와의 근접성	78.8	54.4	51.2	64.3	72.9	53.2
	1-3. 생존 형제·자매	99.5	97.5	91.2	98.2	98.9	97.3
	1-4. 친구·이웃	100.0	99.7	98.8	99.5	99.6	99.5
	영역 점수	92.9	83.4	74.6	88.8	91.0	85.9
2. 경제상태	2-1. 가구균등화소득	77.6	62.9	34.6	60.5	66.0	53.4
	2-2. 가구균등화자산	64.7	69.1	41.4	58.1	53.2	64.5
	2-3. 자산의유동성	69.3	64.3	51.5	59.5	59.9	59.1
	2-4. 연금가입실태	63.8	56.6	20.6	12.4	13.5	10.9
	영역 점수	69.6	63.9	37.7	50.9	51.5	50.2

영역	지표	공적연금 가입자 (n=1,558)	공적연금 수급자 (n=1,060)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n=2,752)	사각지대 (공적연금 비가입, 비수급, 공적부조 비수급)		
					전체 (n=2,184)	60세 이하 (n=1,231)	60세 초과 (n=953)
3. 건강상태	3-1. 만성질환수	87.6	67.9	60.6	76.9	86.1	64.9
	3-2. 우울증여부	87.6	76.7	66.0	76.3	76.6	75.8
	3-3. 활동제한	99.2	94.4	91.0	96.8	97.7	95.6
	3-4. 건강행위 실천	77.3	78.6	65.7	74.5	74.4	74.5
	영역 점수	89.0	79.3	71.0	81.4	84.2	77.8
4. 사회참여	4-1. 적절한 경제활동 참여	70.2	37.3	20.2	33.0	39.0	25.2
	4-2. 단체활동참여수	43.7	39.3	29.6	38.1	40.7	34.9
	4-3. 공연문화 향유여부	23.8	17.9	11.6	18.4	22.1	13.7
	4-4. 여행경험 여부	27.6	25.0	18.9	24.8	25.6	23.8
	영역 점수	48.7	34.0	22.5	32.0	35.7	27.2
종합점수		74.9	65.2	51.1	62.8	65.1	59.8

〈부록 2〉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 비교(특수직연금 종류별)

(단위: 점)

영역	지표	국민연금 수급자 (n=1,248)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공무원연금 (n=162)		사학연금 (n=24)		군인연금 (n=3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가족·사회관계	1-1. 배우자유무	81.2	36.6	91.7	26.1	81.3	37.3	94.0	22.8
	1-2. 자녀와의 근접성	50.8	28.3	52.1	28.7	45.8	24.7	45.0	25.4
	1-3. 생존 형제·자매	96.8	16.8	95.3	20.2	92.5	25.4	97.0	16.4
	1-4. 친구·이웃	99.4	7.2	99.4	7.3	100.0	0.0	100.0	0.0
	영역점수	84.2	16.6	88.3	13.1	82.6	18.7	88.7	9.8
2. 소득·자산상태	2-1. 가구균등화소득	51.1	30.1	76.5	22.6	78.4	24.4	73.0	23.9
	2-2. 가구균등화자산	58.6	30.7	72.8	26.2	75.6	29.6	68.5	27.5
	2-3. 자산의유동성	60.4	36.6	72.2	32.7	75.6	29.6	58.0	35.3
	2-4. 연금가입 및 수급실태	56.0	6.9	55.6	5.1	55.0	0.0	55.0	0.0
	영역점수	56.2	18.3	70.7	13.6	72.8	15.0	65.2	14.1

영역	지표	국민연금 수급자 (n=1,248)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공무원연금 (n=162)		사학연금 (n=24)		군인연금 (n=3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3. 건강상태	3-1. 만성질환수	66.4	30.6	69.2	30.5	80.0	27.5	65.0	33.5
	3-2. 우울증여부	76.3	39.7	73.4	41.2	77.5	39.8	76.0	40.5
	3-3. 활동제한	95.4	19.9	94.1	22.4	92.5	25.4	85.0	34.1
	3-4. 건강행위 실천	74.7	30.2	83.1	27.3	81.3	26.3	89.5	25.6
	영역점수	78.4	18.1	79.2	18.6	82.6	20.1	77.6	23.7
4. 사회참여	4-1. 적절한 경제활동 참여	35.8	30.6	25.4	31.2	14.7	18.7	21.3	28.2
	4-2. 단체활동참여수	36.4	20.9	44.1	23.7	40.0	25.0	42.0	20.7
	4-3. 공연문화 유여부	14.4	19.3	23.0	31.8	32.5	39.8	19.0	27.5
	4-4. 여행경험 여부	23.1	29.2	26.3	33.8	28.8	34.9	25.0	29.7
	영역점수	31.6	15.6	32.3	16.9	28.4	16.2	29.3	15.2
종합 점수		62.4	12.1	67.5	9.9	67.2	11.0	64.9	10.6

〈부록 3〉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 비교(특수직연금 종류 및 급여종류별)

(단위: 점)

영역	지표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노령	유족	퇴직	유족	퇴직	유족	퇴역	유족
		(n=1,248)	(n=163)	(n=162)	(n=26)	(n=24)	(n=4)	(n=30)	(n=32)
1. 가족·사회관계	1–1. 배우자유무	81.2	12.8	91.7	10.0	81.3	10.0	94.0	15.6
	1–2. 자녀와의 근접성	50.8	61.7	52.1	55.0	45.8	51.3	45.0	59.4
	1–3. 생존 형제·자매	96.8	93.9	95.3	100.0	92.5	100.0	97.0	97.2
	1–4. 친구·이웃	99.4	100.0	99.4	100.0	100.0	100.0	100.0	100.0
	영역 점수	84.2	57.6	88.3	57.0	82.6	56.4	88.7	59.2
2. 경제상태	2–1. 가구균등화소득	51.1	46.9	76.5	57.6	78.4	66.3	73.0	57.1
	2–2. 가구균등화자산	58.6	55.3	72.8	73.2	75.6	55.0	68.5	52.2
	2–3. 자산의유동성	60.4	58.6	72.2	58.5	75.6	55.0	58.0	56.4
	2–4. 연금가입실태	56.0	56.7	55.6	55.0	55.0	55.0	55.0	56.4
	영역 점수	56.2	53.6	70.7	61.8	72.8	58.5	65.2	55.4

영역	지표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노령	유족	퇴직	유족	퇴직	유족	퇴역	유족
		(n=1,248)	(n=163)	(n=162)	(n=26)	(n=24)	(n=4)	(n=30)	(n=32)
3. 건강상태	3-1. 만성질환수	66.4	64.1	69.2	63.1	80.0	62.5	65.0	50.3
	3-2. 우울증여부	76.3	69.1	73.4	58.5	77.5	55.0	76.0	71.9
	3-3. 활동제한	95.4	93.9	94.1	86.2	92.5	100.0	85.0	91.6
	3-4. 건강행위 실천	74.7	70.7	83.1	60.2	81.3	88.8	89.5	74.7
	영역 점수	78.4	74.4	79.2	67.1	82.6	74.0	77.6	71.7
4. 사회참여	4-1. 적절한 경제활동 참여	35.8	31.0	25.4	21.3	14.7	26.9	21.3	17.7
	4-2. 단체활동참여수	36.4	34.7	44.1	35.4	40.0	32.5	42.0	31.6
	4-3. 공연문화 향유여부	14.4	15.5	23.0	16.9	32.5	10.0	19.0	12.8
	4-4. 여행경험 여부	23.1	24.1	26.3	22.1	28.8	21.3	25.0	19.8
	영역 점수	31.6	29.5	32.3	26.2	28.4	26.1	29.3	22.6
종합 점수		62.4	55.2	67.5	54.3	67.2	55.4	64.9	53.5

〈부록 4〉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유형별 삶의 질 영역별 점수

(단위: 점)

영역	지표	기초 연금만 수급 (n=2,04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		국민연금만 수급	
			기초+노령 (n=561)	기초+유족 (n=67)	노령 (n=421)	유족 (n=33)
1. 가족·사회관계	1-1. 배우자유무	58.9	74.3	10.0	87.6	15.5
	1-2. 자녀와의 근접성	52.1	47.9	51.5	48.7	58.6
	1-3. 생존 형제·자매	90.4	95.3	87.9	97.6	100.0
	1-4. 친구·이웃	98.8	99.2	100.0	99.4	100.0
	영역 점수	73.7	80.6	53.5	86.7	59.7
2. 경제상태	2-1. 가구균등화소득	33.3	39.8	32.2	56.3	49.5
	2-2. 가구균등화자산	41.0	45.7	36.9	70.9	77.5
	2-3. 자산의유동성	50.5	56.5	55.0	62.5	59.1
	2-4. 연금가입실태	10.1	55.2	55.0	56.0	57.7
	영역 점수	35.1	47.9	42.6	61.8	61.1

영역	지표	기초 연금만 수급 (n=2,04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		국민연금만 수급	
			기초+노령 (n=561)	기초+유족 (n=67)	노령 (n=421)	유족 (n=33)
3. 건강상태	3-1. 만성질환수	59.8	63.9	62.4	65.9	50.0
	3-2. 우울증여부	64.5	71.6	70.4	77.8	64.5
	3-3. 활동제한	90.7	94.9	91.9	95.3	91.8
	3-4. 건강행위 실천	64.5	70.4	67.1	78.5	75.5
	영역 점수	70.0	75.4	73.3	79.3	69.5
4. 사회참여	4-1. 적절한 경제활동 참여	18.6	27.1	19.4	37.5	24.3
	4-2. 단체활동참여수	28.7	33.5	29.3	37.4	42.7
	4-3. 공연문화 향유여부	11.5	11.8	14.0	16.8	12.7
	4-4. 여행경험 여부	18.2	20.8	20.1	25.5	19.5
	영역 점수	21.4	26.7	22.5	33.2	29.2
종합 점수		49.7	57.4	49.5	65.0	56.0

국민연금연구원 발간보고서 목록

2016년도

연구보고서 2016-01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	민기채, 조성은 외	2017.1.
연구보고서 2016-02	베이비붐 세대의 부양부담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송현주, 임란	2017.1.
연구보고서 2016-03	가입기간별 가입자 추계 2016	박성민	2017.3.
연구보고서 2016-04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수급부담 통계모형	최기홍, 신승희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05	국민연금의 일반균형 세대간회계 연구	최기홍, 김형수	2017.3.
연구보고서 2016-06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연금액 추계 2016	한정림, 신승희	2017.3.
연구보고서 2016-07	국민연금 보험료수입 추계 2016	한정림, 김형수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08	국민연금 가입자 추계 2016	김형수	2017.3.
연구보고서 2016-09	해외주식운용 장기성과 개선을 위한 포트폴리오 연구 (비공개)	강대일, 황정욱	2017.3.
연구보고서 2016-10	국민연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추계 2016	신경혜, 송창길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11	국민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추계 2016	신경혜, 송창길	2017.3.
연구보고서 2016-12	공적연금 연계모형 구축과 기초율 산정 연구 2016	박성민, 송창길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13	장기 거시경제 전망모형 연구	성명기	2017.3.
연구보고서 2016-14	국민연금의 장기 거시경제 영향 연구	성명기, 홍기석	2017.3.
연구보고서 2016-15	자산군 프로파일 변경에 기반한 전략적 자산배분에 관한 연구	최영민, 손경우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16	팩터 기반 인덱스의 전술적 활용 방안-해외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손경우, 최영민 외	2017.3.
연구보고서 2016-17	국민연금 액티브운용 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 액티브 위험 한도 설정 체계를 중심으로(비공개)	강대일, 이지연 외	2017.4.
연구보고서 2016-18	독자적 투자전략과 펀드성과의 관계 분석	이지연	2017.3.
정책보고서 2016-01	우리나라 유족보장의 개선방안연구 -유족기초연금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용하, 최인덕 외	2017.1.
정책보고서 2016-02	성직자 노후보장실태와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	유희원, 한신실	2017.1.
정책보고서 2016-03	기초연금 운영국가의 급여수준 검토 및 시사점	최옥금, 한신실	2017.1.
정책보고서 2016-04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유호선, 유현경	2017.1.
정책보고서 2016-05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방안 연구	정인영, 유희원 외	2017.1.
정책보고서 2016-06	은퇴 예정자를 위한 노후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혜영, 김아람	2017.3.
정책보고서 2016-07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및 규모 전망 연구	윤병욱, 송창길 외	2017.3.
정책보고서 2016-08	국내채권 기대수익률 산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이상헌	2017.3.
정책보고서 2016-09	노인기초보장제도의 관리운영방식에 관한 국제비교	이용하, 최옥금 외	2017.4.
정책보고서 2016-10	2015년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	강대일, 이지연 외	2017.3.
정책보고서 2016-11	해외투자시 동태적 환헤징 전략에 관한 연구	주상철	2017.3.
정책보고서 2016-12	해외 주요 연금의 기금운용부문 개혁 사례와 시사점	박태영, 이정화	2017.3.
정책보고서 2016-13	국민연금의 직접운용과 위탁운용 비교에 관한 연구 (비공개)	정문경, 태엄철 외	2017.3.
조사보고서 2016-01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제6차(2015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기초분석보고서-	송현주, 임란 외	2017.1.

조사보고서 2016-02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의 국제비교 연구	국민연금 연구원 연금제도팀	2017.3.
연차보고서 2016-01	2017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ALM분석을 중심으로(비공개)	최영민, 박태영 외	2017.3.
용역보고서 2016-01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 전망	김성태, 권규호 외	2017.5.
요약보고서 2016-01	2016년도 연구분야별 주요 연구결과 요약집		2017.6.
워킹페이퍼 2016-01	국민연금 국내주식의 위탁규모 증가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문경, 이정화	2017.4.
연구자료 2016-01	2016년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 평가보고서	황정욱, 태엄철	2017.4.
프로젝트 2016-01	해외 연기금의 책임투자관련 주요 현황	이정화, 원상희	2017.3.
프로젝트 2016-02	통일 대비 효율적인 연금통합 방안 연구	이용하, 이철수 외	2017.4.
프로젝트 2016-03	2016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최옥금, 이상붕 외	2017.4.
프로젝트 2016-04	국민연금과 국민경제 연구	성명기 편	2017.5.
단기과제 2016-01	단기연구과제1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역할정립 및 연계방안,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판정기준 연계방안)	오욱찬, 이재은	2017.4
단기과제 2016-02	단기연구과제2 (공단 내· 외부 데이터를 융합한 가치 창출 및 업무 활용방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연금 부정수급 예측모형 개발 방안)	유호선, 왕승현, 이은영	2017.4
단기과제 2016-03	단기연구과제3 (60세 이후 연령대별 필요 생활자금 조사, 노후준비 교육의 체계 및 주제 분류, 내연금 사이트 종합재무설계 내용 개선)	성혜영, 김아람	2017.4

2015년도

연구보고서 2015-01	자녀세대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과 노후준비	송현주, 임란	2016.3.
연구보고서 2015-02	결측치 대체방법 연구 -국민노후보장패널 소득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박주완, 김호진	2016.3.
연구보고서 2015-03	중기 거시경제 전망모형 연구	성명기	2016.3.
연구보고서 2015-04	국민연금이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명기, 이준상	2016.3.
연구보고서 2015-05	미국의 경기국면의 예측과 투자전략	손경우, 최영민	2016.3.
연구보고서 2015-06	자산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GIPS®기준의 국민연금 성과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	정문경, 이지연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07	노인가구의 경제적 가치 수준과 빈곤완화 효과 분석 -한국, 미국, 영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상붕, 이은영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08	국민연금가입자 중기전망방법 개선 연구	박성민, 송창길	2016.3.
연구보고서 2015-09	기초연금 재정시뮬레이션	신경혜, 김형수	2016.3.
연구보고서 2015-10	국민연금 보험료수입 및 신규수급자의 기본연금액 추계를 위한 소득지수 개선방안 연구	한정림, 송창길	2016.3.
연구보고서 2015-11	사망률 전망 모형의 선택과 전망된 사망률에 기초한 국민연금의 수익비와 재정효과 분석	최장훈, 권미애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12	출산율과 사망률 변경에 따른 인구전망	최장훈, 김형수	2016.3.
연구보고서 2015-13	미시모의실험 모형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 측정	최기홍, 신승희	2016.3.
연구보고서 2015-14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정책의 평가: OG모형 파레토 개선 접근법	최기홍, 신성휘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15	재무곤경위험을 고려한 해외주식 포트폴리오 구성전략에 관한 연구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강대일, 조재호 외	2016.3.

연구보고서 2015-16	외부 위탁운용 매니저의 군집투자 행태(herding)와 유인에 관한 연구	이지연, 태엄철	2016.3.
연구보고서 2015-17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전망방법 개선 연구	한정림, 허재준 외	2016.5.
정책보고서 2015-01	기초연금 급여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연동방법 검토	최옥금, 한신실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2	고령화의 진전과 공사적 연금자산 성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박태영, 원상희	2016.3.
정책보고서 2015-03	국민연금기금의 통화 오버레이 전략에 관한 연구	주상철, 노상윤	2016.3.
정책보고서 2015-04	국민연금 부동산투자 다각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노상윤, 주상철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5	CVaR를 사용한 전략적 자산 배분에 관한 연구	최영민, 손경우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6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 관리개선에 관한 연구	정문경, 황정욱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7	2014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	강대일, 정문경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8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가요인분석과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하, 김원섭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09	공적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정책의 보완적 발전 방안	정인영, 민기채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10	생애주기별 소비 및 저축실태 분석에 따른 노후준비 전략	성혜영, 이은영	2016.3.
정책보고서 2015-11	국민연금 목표초과 수익률 산출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강대일, 정문경 외	2016.3.
정책보고서 2015-12	정년제와 공적연금제도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김헌수, 유현경	2016.5.
조사보고서 2015-01	중·고령자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대처 전략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부가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송현주, 박주완 외	2016.3.
연차보고서 2015-01	2016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ALM분석을 중심으로	최영민, 박태영 외	2016.3.

연차보고서 2015-02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6-2020)	박성민, 신경혜 외	2016.5.
용역보고서 2015-01	싱가포르 공적연금 기금운용의 시사점	이준희	2016.5.
용역보고서 2015-02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주은선, 김진석 외	2016.5.
용역보고서 2015-03	기금규모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의 시장영향력 분석	이재현	2016.5.
워킹페이퍼 2015-01	가입자 및 수급자 추계의 기초율 추정	김진미	2016.3.
연구자료 2015-01	2015년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 평가 보고서	황정욱, 태엄철	2016.5.
프로젝트 2015-01	해외 연기금의 기금관련 주요 현황	이정화, 원상희	2016.3.
프로젝트 2015-02	주요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의 경제사회적 성과 비교 -동독, 체코, 헝가리, 폴란드를 중심으로	이용하, 민기채 외	2016.5.
프로젝트 2015-03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종합적 고찰	이용하, 김원섭 외	2016.5.

2014년도

연구보고서 2014-01	가입기간별 기초율을 적용한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Ⅱ)	박성민	2014.12
연구보고서 2014-02	공적연금 가입자 추계 방법 연구	박주완, 한정림	2014.12
연구보고서 2014-03	국민연금 이력자료에 의한 계층별 특성치의 통계적 추정	최기홍, 신승희	2014.12
연구보고서 2014-04	국민연금제도변수 중기 전망 연구	성명기, 최장훈	2014.12
연구보고서 2014-05	국민연금과 거시경제 모의실험모형 연구	성명기	2014.12

연구보고서 2014-06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의 최적공분산 추정에 관한 연구	최영민	2014.12
연구보고서 2014-07	경제적불평등과 노후최저보장제도의 관계 및 시사점 -OECD국가를 중심으로	이상붕, 서대석	2015.3
연구보고서 2014-08	국민연금 기타 대체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연구 (비공개)	정문경, 최장훈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09	국민연금의 재정평가 지표에 대한 비교연구	최기홍, 김형수	2015.3
연구보고서 2014-10	남부유럽 연금개혁 연구	권혁창, 정창률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11	독거노인의 생애노동이력과 이전소득 효과 연구	송현주, 성혜영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12	부도위험을 고려한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과 거래전략에 관한연구	강대일, 조재호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13	고연령 사망률 추정과 미래 사망률 전망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최장훈, 김형수	2015.3
연구보고서 2014-14	시간변동성 성과평가지표를 이용한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정문경, 황정욱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15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연금소득 추정	한정림, 박주완	2015.3
연구보고서 2014-16	유족연금 및 중복급여 산출방법 개선방안	신경혜, 신승희	2015.3
연구보고서 2014-17	환경, 사회, 지배구조요인(ESG)을 이용한 투자 전략에 관한 연구	손경우, 주상철	2015.3
연구보고서 2014-18	ALM을 사용한 기금운용 통합관리방안(Ⅱ)(비공개)	강대일, 김배호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01	국민연금 국내부동산 벤치마크 사용자지수 산출에 관한 연구	노상윤, 민성훈 외	2014.12
정책보고서 2014-02	국민연금기금의 액티브 외화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주상철, 손경우	2014.12
정책보고서 2014-03	공적연기금 리스크 관리체계의 국제비교	최영민, 박태영 외	2014.12
정책보고서 2014-04	국민연금 국내 인프라투자 벤치마크 지수 개선방안 연구	노상윤, 유승동 외	2014.12

정책보고서 2014-05	정년연장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헌수, 김원식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06	2013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공개)	강대일, 정문경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07	2013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비공개)	강대일, 정문경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08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선방안	박태영, 이정화	2015.3
정책보고서 2014-09	국민연금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지역가입자 관리개선 방안연구	정인영, 김경아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10	노인기초보장제도와 국민연금 간 역할분담관계에 관한연구	이용하, 최옥금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11	단시간 근로자 실태와 국민연금 적용방안	최옥금, 조영은	2015.3
정책보고서 2014-12	연금교육 활성화를 통한 노후준비 수준 제고 방안	성혜영, 송현주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13	우리나라 노년층의 노후소득격차 발생요인 분석과 지원방안연구	김경아, 김헌수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14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노동시장 특성과 국민연금 제도 가입확대방안	유호선, 박주완 외	2015.3
조사보고서 2014-01	유족연금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유호선, 김경아 외	2015.3
조사보고서 2014-02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국제비교연구	이용하, 정인영 외	2015.3
조사보고서 2014-03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실태 -제5차(2013년도)국민노후보장패널(KReIS)분석보고서-	송현주, 이은영 외	2015.3
연차보고서 2014-01	2015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ALM분석을 중심으로(비공개)	기금정책팀	2014.12
연차보고서 2014-02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5~2019)	박성민, 신경혜 외	2015.3
용역보고서 2014-01	최적사회보장과 창조경제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투자방안을 중심으로	임양택	2014.12

용역보고서 2014-02	1. 독일연금통합의 전개과정 평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 북한사회보장과 연금제도 운영실태 분석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원섭 이철수 외	2015.3
용역보고서 2014-03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 연구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재진, 이정우 외	2015.3
용역보고서 2014-04	반납·추납 보험료 대여사업 사업타당성 분석 및 수요도 조사(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승훈	2015.3
용역보고서 2014-05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노후보장체계 국제비교 연구	김상호, 배준호 외	2015.6
워킹페이퍼 2014-01	연간 거시경제계량모형 개발	박무환	2015.3
연구자료 2014-01	2014년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 평가보고서	황정욱, 태엄철	2015.3
프로젝트 2014-01	OECD 주요 국가의 기초보장 급여적정성 평가방법	이용하, 최옥금 외	2015.3
단기과제 2014-01	단기과제 I	성혜영, 송현주 외	2015.6
단기과제 2014-02	단기과제 II	이용하, 유호선 외	2015.6

저자 약력

- **송 현 주**

  인하대학교 졸업

  인하대학교 박사(가계경제학)

  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 **임 란**

  연세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석사(사회복지학)

  현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05

중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 특성과 삶의 질 연구

2018년　4월　인쇄

2018년　4월　발행

발행인 : 김 성 주

편집인 : 이 용 하

발행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TEL : 063-713-6776　/ FAX : 063-715-6564

ISBN 978-89-6338-389-7